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고 온 조국도 천교도신앙의 나라 미국도 수렁에 빠진 듯 우왕좌왕 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회개하고 회복되는 현장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나라 사도행전 6장 7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12월 3일 (토) 제 161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교회성장 원동력은 “성경적 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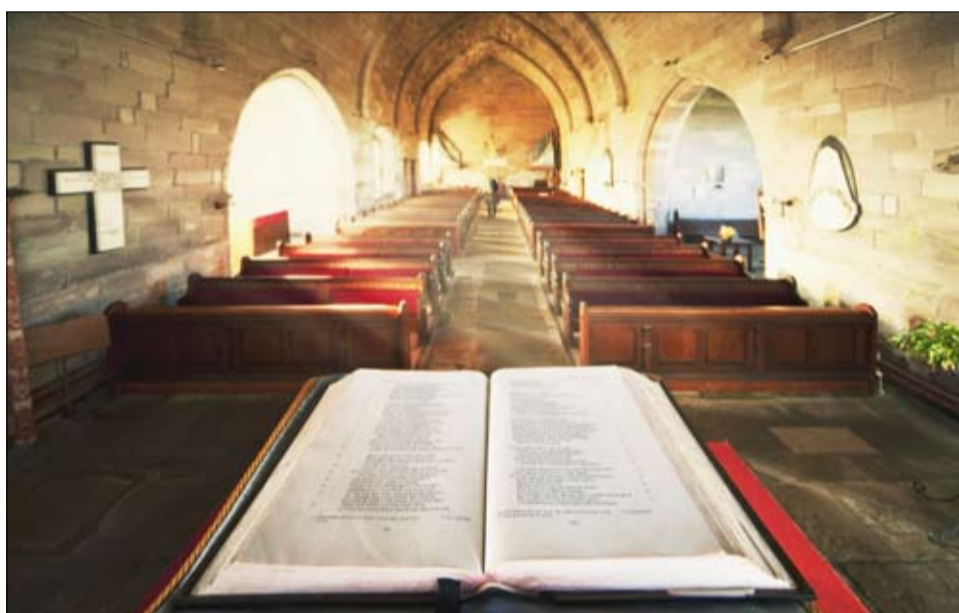
#### 월드, 윌프리드리어대학/리디머대학 설문 결과 보도

“보수 신학, ‘성경적 신학’ 아니면 교회성장 어렵다!” 윌프리드리어대학(Wilfrid Laurier University)과 리디머대학(Redeemer University College)은 ‘교회 성장과 신학’과의 상관 관계에 대한 5년간의 연구 결과의 핵심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데이비드 하스켈 교수는 “만약 우리가 개신 교회 가운데 어떤 신학 체계가 교인 수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지

에 관해 말하자면, 보수 개신교 신학이 분명히 승자다”라고, 한마디로 교회 성장은 철저한 성경주의적 신학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월드’는 간략하게 그 내용을 보도했다(Biblical theology a predictor of church growth: Thriving mainline congregations remain committed to Biblical beliefs).

### “ ‘보수 신학’ , ‘성경적 신학’ 아니면 교회성장 어렵다!”

이번 연구(Theology Matters: Comparing the Traits of Growing and Declining Mainline Protestant Church Attendees and Clergy)는 캐나다 온타리오에 소재한 2,225개 교회와 29명의 목회자들, 195명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단별로는 성공회, 복음주의적 루터교회, 장로교회 그리고 연합교회로 이 중 반절 정도는 교인 감소로 진통을 겪고 있고 또 나머지 반절은 꾸준히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모든 설문 항목들에 있어서, 꾸준히 성장하는 주류교회들은 기독교의 전통적 믿음들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기도나 성경 읽기에 열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스켈 교수는 분석한다.



교회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감소하는 세태 속에서도 오직 성경만을 고수하는 교회들은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성장하는 교회들에서는 목회자들의 신학과 신앙이 중요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으며,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지상 사명으로 여기고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인이 감소하는 교회들에서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매일 읽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거의 50%정도만 믿고 있고, 대부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부인하며 그리고 개인구원보다는 사회-정의 구현을 선교로 알고 행하고 있었다. 또한 성장하는 교회들은 내부적으로는 아날로그 체계 즉 보수 신학으로 자리를 잡고, 예배, 교육 스타일은 현재에 맞게 적용해 교회 오르간대신 드럼이나 전

자 기타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로, 이번 설문에서 드러난 사실은 성장하는 교회들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 2/3는 60세 미만이었으며, 반면에 성장이 멈춘 교회에서는 1/3에 불과했다. 젊은 사람들은 다른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힘과 분명한 목적을 주는 종교에 끌리게 된다는 것이 젊은 세대의 종교 선택 동기이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방향을 말해줄 어떻게 보면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교회를 찾게 된다는 것

이 또한 이번 연구 결과에서 얻어진 수확이다. 지구촌에서 대부분의 주류교단들은 1년에 1%씩 교인들이 감소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거의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작년엔 퓨리서치 센터는, 북미 주류교단들에서 2007년과 2014년 사이에 거의 1백만 명 이상의 교인들이 빠져나갔다고 발표했다. 그러는 동안 남침례교회나 하나님의 성회 그리고 장로교회(PCA)는 오히려 성장했다.

(13면으로 계속)

### 문화적 요소가 투표권자 좌우

#### 서구에 급부상하는 포퓰리즘을 경계한다(2)

웨스터민스터신학교 교회사 수업 중 질의응답 시간에 칼 트루먼(Carl R. Trueman) 교수는 한 학생으로부터 오늘날의 교회가 왜 젊은 성도들을 잃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질문이 거론될 때면 보통 “세상의 유혹” 또는 “교회와 사회의 이질감”과 같은 답변이 가장 빈번히 등장한다. 하지만 칼 트루먼은 이 질문에 대해 가정교육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며 그가 통찰하고 있는 바를 설명하였다(How Skipping Church Affects Your Children: The church is losing its young people because the parents never taught their children that it was important).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왜, 그것도 서구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유럽과 북미의 여러 국가가 처한 경제, 사회, 정치적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경제적 정체이다.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지만 1970년대 이후 성장률이 서서히 주저앉았다. 루치르 샤프마는 저서 “국가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Nations)”에서 이런 거대한 침체를 부른 거대한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인

을 주지만, 특정 분야는 타격을 입힐 수 밖에 없으며 기술이 없거나 부족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일자리를 잃게 됐다. 서구 전체에 영향을 준 또 하나의 트렌드는 정보 혁명이다. 신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는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기술은 세계화 추세를 강화하며 특정 직업 자체를 없애 버렸다. 무인자동차가 상용화 되면 미국에서는 트럭 운전사 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정부 재정이다. 대부

### 인구, 세계화, 기술, 정부 재정이 문제 핵심 해답은 투자확대, 노동자 재교육, 의료개혁 세계금융위기 후, 좌우파 혼합경제로 타협

구 문제를 꼽았는데, 바로 미국, 폴란드, 스웨덴, 그리스 등 여러 국가에서 공통으로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것이 심각한 노동력의 빈곤을 가져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은퇴자 수는 늘어나게 된 것이다. 경제 성장이 느려진 가운데 세계화라는 새로운 과제도 찾아왔다. 서구의 경제는 비교적 개방돼 있다. 낮아진 국경은 경제 전체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

분의 서구 국가들은 엄청난 정부 부채를 떠안고 있다. 유럽연합(EU)의 GDP 대비 부채율인 67%나 미국의 81%가 정부를 파산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는 분명 정부의 움직임에 제약을 준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과 의료에 더 많은 정부 예산을 쏟아 붓게 되고,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교육,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3면으로 계속)

###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윌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윌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찬양, 간구, 회개, 고백...은혜와 감동을 전하라!



5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7면

그랜드캐니언 노아홍수...  
박창성 박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4면

세계한인기독교인연합회...  
송정훈 집사

### 제4회 선교적교회 세미나 2017.3.13(월)~15(수)

# 선교적 교회와 목회 리더십

## Missional Church and Pastoral Leadership



이학준 교수

조직신학  
Fuller Theological Seminary  
G2G 크리스찬 교육센터 소장



신혁선 교수

사회복지  
Virginia Commonwealth Univ.  
YOUTH KOSTA 멘토



최병호 목사

베다니 장로교회 담임  
아시아인 센터 이사장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국내 선교위원장



배현찬 목사

주 예수교회 담임  
DSMC 원장  
KWMC 공동의장



노승환 장로

주 예수교회 장로  
심장내과 의사  
단기 및 전문인 선교사역

- 장 소: 주 예수교회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 등록비: \$100 (교재 및 숙식), 선교사 (등록비 면제)
- 주 최: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원 (DSMC)
- 협 력: NCKPC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 총회) 국내 선교 위원회
- 숙박: Four Point Sheraton Richmond
- 등록: 주 예수교회 전화 및 홈페이지 (www.ljkc.org)
- 주관: 주 예수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

주 예수교회/디아스포라 사회선교원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804)560-7500/7509 WWW.LJKC.ORG





# 시론

## "광장(Forum)의 이상에서 빛의 절기로"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지난 주 한국에서는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서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촛불집회가 무려 200만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을 포함한 최씨 일파들의 국정농단에 백성들의 분노는 촛불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초겨울 눈비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광장에 모인 부모들, 전국에서 1, 2주 걸쳐 트랙터를 몰고 올라오는 성년 농심들, 심지어 한창 공부에 열중해야 할 중, 고등학생들까지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없다며 역사의 현장에 발자국을 남기겠다고 온갖 패러디물들을 들고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을 거친 진도 앞바다에 수장해버린 세월호사건 이후, 또한번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우리 민족의 누추한 자화상을 향한 촛불들이 햇불 되어 태우고 있는 준엄한 광장의 외침을 목격하고 있다.

일찍이 400여 년 전 영국의 유명한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신(新)오르가눔(Organum)"이라는 그의 책에서 네 개의 우상(Idola)들을 논하고 있다. 먼저는 '종족의 우상'이다. 인간이 살아오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 농축되어온 문화적 선입견에 따라 사물들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간 집단의 문화적 선입견이 때론 울퉁불퉁한 거울과 같을 수 있다고 했다. 특정 집단은 이념에 따라 믿고 싶어 하는 것만 진리로 믿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족의 우상은 정치집단에서 두드러지는데,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 국정화 작업 시도를 통한 역사왜곡의 예이다.

다음으로 '동굴의 우상'을 얘기한다. 동굴의 우상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비롯된 것인데, 개인의 좁은 소견에서 비롯되는 착각들, 개인의 호나 편견, 만족이 빛이 내는 우상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동굴에 죄수들이 갇혀있는데 이 죄수들은 자제와 목이 고정되어있어 어두운 벽만 쳐다보게 되어있다. 그래서 뒤쪽의 불빛에 반사된 다른 죄수들의 그림자만 보고 살게 되어 있다고 한다. 어두운 권력의 맛을 본 자는 권력의 그림자만 쫓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 다음으로 '시장(광장, forum)의 우상'을 얘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장(광장)에서 주고받는 얘기들, 혹은 확인되지 않는 풍문들을 광장에 모인 대중들의 위압감에 사로잡혀 그대로 믿고 따르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확한 진실이나 팩트와는 상관없이 모여든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만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적 접근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말에 쉽게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의 극복을 위해 베이컨은 언어나 혹은 말보다는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의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을 논한다. '시장(광장)의 우상'과 비슷한 것이지만 이것은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나 영화에 의해 가장된 실제, 선호하는 인기 연예인들의 주장은 은연중에 진실처럼 믿고 신뢰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라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세속적으로 부하고 성공한 권력은 과정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믿으려는 심리이다. 베이컨은 이러한 우상들이 한 인간이나 사물의 올바른 실제에 접근하는 장애물이 되기에 이를 극복할 때에만 진정 바른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금년에 드러난 국가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엮여지고 있는 국정농단의 실체는 비단 어제 오늘날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의 지금까지 이어온 어두운 인류문명의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타락한 인간학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오히려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욱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바벨론 음녀의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정치권력으로 감추려 해도 불꽃같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때가 되어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의 역사는 증명한다. 이러한 거짓 신들의 우상을 드러내시고 만천하 앞에 심판하시므로 그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기를 기대하신다.

광장의 우상을 깨기 위해 광장에 모인 수백만의 촛불은 마치 부정과 부패, 불의를 향한 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햇불이었다. 남녀노소, 너와 내가 손에 손을 잡고 화염병대신 약하고 연한 손을 연이어 공평과 정의를 노라한 자들은 기쁨과 축제의 빛이 되었다. 꽃 스티커를 경찰 차량에 붙여주며 수고하는 경찰들을 안아주고, 얼어붙는 손 녹이라고 따뜻한 차와 커피를 내놓는 이웃들은 사랑과 화목의 빛이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심상하고 푸른 삼복수, 평화의 행진을 함께 떠장한 자들은 공평과 정의의 빛이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빛의 절기가 시작된다. 차가운 광장의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은 따뜻한 복음의 광장으로 화하기를 기대한다.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학파와 논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듯이(행17:17),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안에서부터 소망의 빛, 평화의 빛, 기쁨의 빛, 사랑의 빛이 햇불되어 타오르는 빛의 절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혼란에 빠진 우리의 조국이 속히 모든 부정과 부패 권력을 일소하고 진정한 복음의 빛으로 공평을 감각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민족으로 거듭나는 빛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johnhdc@yahoo.com

# 찬양, 간구, 회개, 고백...은혜와 감동을 전하라!

## 처치리더스닷컴, 매트 보스웰 목사의 찬송가를 예배시간에 불러야 하는 이유 소개

나(매트 보스웰 목사)는 오래된 찬송가를 참 좋아한다. 찬송가를 꾸준히 모아오고 있는데 내 서재의 책꽂이에 낡고 오래된 찬송가부터 빼곡히 쌓여있다. 찰스 웨슬리, 존 립본과 같은 분들의 찬송을 통해 많이 배우고 깨달음을 얻는다. 언젠가 찬송에 깃들여있는 목회신학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을 정도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 중 '왓츠(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왓츠)'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니 내가 얼마나 찬송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지 짐작할 것이다.

물론 교회에서 고전 찬송만 불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예전부터 역사와 함께 해온 찬송가들이 사라진다면 교회

의 역사를 담은 목소리조차 같이 소멸되는 것이 우려될 뿐이다. 어느 교회를 보면 2년이 지난 찬양조차도 한물간 찬양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 교회에게 100년이 넘는 찬양은 당연히 구시대적인, 낡은 성가로 보일 것 같다. 시편 96편 1절에서 말씀하듯, 우리의 교회는 계속해서 새 노래를 만들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랜 역사와 함께 해 온 찬송들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Why You Should Keep Using Hymns in Your Worship Services).

새롭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역사적인 찬송가라고 언급했을 때 지역교회에서 한 때 일어났던 '예배 전쟁'이 떠올라 부정적인 생각이 스쳤을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래된 찬송가만 좋아하는 분일 수도 있다. 혹은 어떤 찬송을 부르던 이게 중요한 주제인지 의문스러운 분일 수도 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역교회에서 논쟁을 종종 벌이는 주제를 상기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다. 그런 감정을 유도했다기보다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젊고 어린 교



## 찬송가엔 성경말씀, 권면 있고 예배에 대한 마음 모아줘 청-장년 연합, 하나님과 은혜 안에 감춰진 소망 발견케

회들이 교회의 역사를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해온,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불러온 찬송가를 함께 부르며 계승시켜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요즘 시대의 흐름을 보면 혁신, 차세대와 같은 단어들이 각광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의 찬송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최신의 산물이 가장 최고의 산물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어온 찬송들을 부르다 보면 시대와 투쟁하고 기도한 세대,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과 소망을 지켜온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들은 옛날부터 항상 존재해왔다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된다. 역사를 통해 온갖 시련을 이겨낸 예수에 대한 믿음과 찬양을 만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우리 또한 기쁨으로 걸어가게끔 인도해준다.

새로운 찬송들도 꾸준히 만들어 부르는 것과 동시에 과거를 잇는 기억 상실증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C.S. 루이스가 이야기 했듯이, 새로운 찬양 세 곡을 부를 때마다 고전 찬송가를 한 곡 정도 부르는 방법은 어떨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백성 찬양 드리고/저 천사여 찬송하세/찬송 성부 성

자 성경 -토마스 켄(1674)

찬송가는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

찬송가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경 속 진리를 간단명료하게 해석해주는 설교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인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다듬어주고 복음의 빛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안내해준다.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하듯, 우리가 한 주간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들을 강론해주는 역할을 한다. R.W. 데일의 유명한 말처럼, "내가 교회의 찬송가

를 쓰게만 해주면 신학은 누가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았다."

찬송은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르쳐 주는 매체이다. 아이작 왓츠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발간했을 때, 그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읊으며 찬양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경구절의 시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다.

기독교인들에게 찬송이란 형태적이고 상호반응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 우리는 배우고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gmail.com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 2017년 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mailto: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mailto:wdc@midwest.edu)



# 문화적 요소가 투표권자 좌우

(2면에서 계속)

인구, 세계화, 기술, 정부 재정 문제에 대한 정답은 투자 확대, 노동자 재교육, 의료 개혁 등을 차근차근 실시해가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극적인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점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큰 좌절감을 안겨준다. 미국 등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필수요소인 경제와 균형을 집어치우고 화끈한 결단을 내려줄 지도자들이 부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글로벌 경제의 영향력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경제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크게 바뀌었다. 1960년대에는 좌파와 우파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이 서로 크게 달랐다. 좌파는 모든 산업 부문을 국영화하고자 했고, 우파는 정부의 간섭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함께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가 신뢰를 잃고, 세계 각국의 좌파 정당은 중도 방향으로 좌표를 옮기기 시작한다. 우파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여전히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주장이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 좌우는 모두 어느 정도의 혼합 경제를 받아들이

며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가 약속하는 경제 정책은 인프라 지출 확대, 높은 관세, 워킹맘에 대한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말로는 규제와 세금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클린턴 쪽의 경제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인프라 투자를 클린턴의 두 배로 하겠다고 큰소리를 친 적도 있다.

이와 같은 좌, 우파 경제 정책의 동화 현상으로 인해 오늘날 좌우 간의 중요한 차이는 경제가 아니라 문화 부문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그 외 여러 포퓰리스트 정치인을 지지한 유권자들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이들의 투표 동기를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가치관에서 찾고 있다.

잉글랜드와 노르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에 시작했다. 젊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적 정치관에서 벗어나 자기표현, 젠더 인종, 환경과 같은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들은 권위와 기득권에 도전해 규범을 바꾸고 사회 변화를 끌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작용도 있었다. 구세대, 특히 남성들은 이런 변화를 지금까지 자신들이 구축하고 지켜온 문명과 가치관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사회문

화적 변화를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표를 주기 시작했다.

이런 반작용으로 유럽에서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했고, 미국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경제 정책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문화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공화당 내에서는 문화적, 경제적 보수주의자들과 외교 분야의 매파들이 수십 년간 불편한 동거를 이어왔다. 그러는 동안 민주당은 빌 클린턴 하에서 우클릭을 계속하며 전문직과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노동 계급의 백인들은 코스모폴리탄적인 민주당의 분위기에 소외감을 느꼈고, 이른바 3G 문제(종교, 총, 동성애)에 있어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공화당에서 안식을 찾게 된다.

오바마 정부 초기에 발생한 우파의 풀뿌리 운동인 티파티는 처음에 정부의 금융 위기 구제책에 대한 반발로 여겨졌으나, 수백 명의 티파티 지지자를 심층 인터뷰한 연구팀은 티파티 운동의 핵심 동력 역시 문화적인 요소였다고 결론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강렬한 적대심에서도 드러나듯 인종이라는 요소도 분리할 수 없었다.

(계속)

# 찬양, 간구, 회개, 고백...은혜와 감동을 전하라!

(2면에서 계속)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사무엘 스톤(1886)

찬송은 우리를 권면한다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받고 때론 우리의 애정과 주인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 우리의 죄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되면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 속죄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면 예수님의 순종하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성경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땐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의지해야 하는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된다.

지쳐있고 낙담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해서 권면해주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 의심하는 자들이 다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권면해준다.

두려움아 물러가라, 나의 구원자가 가까이 계시니/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기도로써 씨를 뿌릴 때에 그는 역사할 것이며/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풍랑 앞에서도 나

는 웃으리로다

-존 뉴턴(1779)

찬송은 예배에 대한 마음을 모아준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깊이 묵상하게 해주는 역사 속 위대한 찬송가들을 선택해야 한다. 찬송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모아 주는 역할을 해준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처럼, 강력한 진리를 토대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찬양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배와 신앙의 여정이 향하는 종착점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교회 예배를 위해 고전 찬송가를 선택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곡들을 선택해야 한다. 찬송가의 가사는 물론 멜로디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는 데 아름다움과 조율성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심을 보다 더 정확하게 키워나가기 위해선 진심에서 우러난 고백을 이끌어내야 한다.

얼마나 오래되었든 찬송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또한 회중의 마음을 모으고 분위기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시간 때우기용은 더더욱 아니다. 찬송은 거룩한 행위이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 명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에 대한 찬양과 감사,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한다.

세상은 주님 말씀을 달갑지 않게 여기나/우리 편 되신 주님이 성령과 은사 주신다/내 가족 내 재물 내 명예 내 생명 다 빼앗긴대도/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마틴 루터(1529)

오래된 찬송 안에 새 찬양이 있다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찬송들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찬양하기 위한 것들이다. 찬양, 간구, 회개와 고백이 담겨 있는 이 찬송들은 교회가 역사를 거쳐 경험해온 세월의 폭과 포용성을 담고 있다.

교회의 실제 나이와 성도들의 경륜을 떠나 오래된 찬송가를 교회에서 함께 부르기 시작하면 찬양인도를 하는 나에게도 회중들이 하나님에 대한 숭고한 경배심에 집중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 찬송들은 예수의 몸 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해준다. 젊은 청년층과 장년층을 연합시키고 하나님과 은혜 안에 감춰진 소망을 발견하게 해준다.

예부터 도움되시고/새 소망 되신 주/이 세상 풍파 중에도/늘 보호하시리 -아이작 왓츠(1719)

보스웰(Matt Boswell) 목사는 워싱턴 주 두발리델션교회 담임 사역자다. 그는 찬송가 사랑으로 유명하다. 열린 예배 열풍으로, CCM이나 가스펠 송이 주일예배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그는 예배 시간에 찬송이 주는 은혜와 감동을 언제나 열정적으로 전한다.

#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중신교회 원로)

## 담임목사의 부교역자론(상)

### 1) 인정해야 한다

그들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시차가 있을 뿐 그들도 정규 신학수업을 거쳤고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수했다. 물론 나이 차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사실과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들을 목사가 아닌 대한다든지 용역회사 직원 다루듯 해선 안된다. 그건 내 자식이 부목사여도 안된다.

현재 필자의 두 사위가 모두 목사이면서 신학대학 교수와 선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사석이나 집 안에선 김 목사라든지, 김 교수라는 호칭을 쓴다. 그러나 공식자리에선 단 한번도 그런 식의 호칭을 쓴 일이 없다. 반드시 '김 목사님', '김 교수님'이라고 불렀다. 스승, 선배, 담임목사라는 점을 내세워 '어이, 김 목사', '야, 너 XX야'라고 부른다든지 공사 구분하지 않고 호통 치고 벼락 치는 것은 할량 모자라는 교양 탓이고, 자신의 약점을 덮으려는 일종의 콤플렉스 현상이다.

### 2) 내일을 보아야 한다

오늘은 부목사지만 내일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중대형교회 목회자가 될 것이고 한국교회 지도 그룹을 형성할 사람들이다. 오늘은 숨죽이고 말 못하는 존재처럼 사역하겠지만 내일은 세계를 호령하고 뻗어나갈 제 2, 제 3의 바울임을 인식해야 한다. 필자는 늘 이 점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부목사들을 차별 없이 대했고 형제처럼 지냈다. 물론 개인적 잘못이 드러나거나 시책착오가 발견되면 따로 불러 타 이르고 함께 기도하고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때로는 직역단을 날려 정신이 들도록 했다. 그들이 지금은 각처에서 크게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중대형교회 목회자로 섬기고 있다. 부목사는 동역자이지 종도 경호원도 아니다. 그들 속에 잠재된 내일을 보는 사람은 그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 3) 리드해야 한다

부목사에게 전권을 맡기고 목회를 거의 위임하다시피 한 채 부흥회 인도, 학교 강의, 총회, 연합체, 사회활동 등에 전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양은 피동적 동물이어서 이끄는 사람을 따라간다. 그리고 두뇌 입력 시간이 경과하면 밖으로 나오는 목자는 있어버리고 지금 곁에서 서성대는 목자를 진짜 목자라고 인식해 버린다. 사고의 틀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나뉘면 내 양이 아니고 언젠가는 목자가 바뀌기를 기대하게 되어 버린다.

담임목사가 부교역자들의 멘토가 되고 리더가 되려면 최소한 존경이라는 기본 줄 아래

로 떨어지면 안 된다. 직위와 서열상 그 앞에선 머리를 조아리겠지만 그 앞을 떠나면 다른 몸짓을 할 것이 뻔하다. 부교역자뿐이겠는가? 교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모으는 것도 똑같다. 목사의 용변에 감동하던 시대는 지났다. 학벌이나 위용에 매료되던 시대도 지났다. 배경이나 족보에 환호하던 세월도 물처럼 흘러갔다.

그가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가? 실행과 언행의 일치가 교인을 매료하고 동역자들을 감동시킨다.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너도 나도 아니다. 여기도 없고 거기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닮기 위해 피땀을 흘려야 한다.

### 부목사의 역할과 책임

부목사 그들은 어떻게 살고 일해야 하는가?

### 1) 최선을 다하라

필자는 중신교회 35년 목회 기간 동안 수많은 부목사들과 동역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최선을 기피하는 사람들로 대별된다. 화려한 학벌과 학위, 넓은 가문에 인맥 등을 움켜쥐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거만하고 태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이 있다. 담임목사를 알 잡아 보고 동료들 위에 군림하려 든다. 그리고 오래 못 견디고 제 갈 길로 가 버린다.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목회도 안되고 교수도 못되고, 기관장의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다. 그러나 세칭 가방꾼 짚고 지닌 것은 없지만 입술이 부르드고 코피가 터지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금 어디 누구라면 다 알만한 중대형교회 목회자로, 대학과 신학교의 교수로, 교회기관의 대표로 달음질하고 있다.

### 2) 존경하고 배우고 야단맞으라

담임목사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세월 탓도 아니고 운세 탓도 아니다. 남이 모를 일들과 말 못할 사연들이 배경이 되었고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목사들은 곁에서 보이는 객관적 상황만으로 절로 되었다거나 운이 좋았거나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것으로 이해하려 든다. 목회에 우연이 어디 있는가? 목회에 산절로 수절로는 없다. 있다면 눈물, 아픔, 고통, 고뇌, 가슴앓이, 고독이 있을 뿐이다. 그들을 존경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배우고 때로는 야단도 맞아야 한다. 부목사가 담임목사 목회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장애물이 되면 안된다.

iamcspark@hanmail.net

**YEAR 2016**

# 베데스다 대학(원) 동문 송년 및 감사의 밤

**초대의 말씀**

2016년 한 해를 마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시는 베데스다 대학(원) 동문 여러분을 모시고 송년 및 감사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동문의 우의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총동문회장 최창수 목사 배상**

**주최 : 베데스다 대학 (원) 총 동문회**  
**일시 : DEC.15 목요일 2016**  
**저녁식사 시작 오후 6시**  
**장소 : THE ROCK 한인교회**  
 101 E. ORANGETHORPE AVE, ANAHEIM, CA 92801

**예약 및 문의 : 총무 박정기 목사**  
**213-327-8095**

**회비 : \$10.00 (성인 1명+ 성인 동반자 1인)**  
 (맛있는 저녁식사와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거리’를 좁혀라

-2016년 연말 특새를 준비하며-

다윗은 언더독(underdog)이고, 골리앗은 오버독(overdog)입니다.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거인,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유대인 소년이고 골리앗은 부모의 자랑인 블레셋의 영웅. 다윗은 조약 돌 몇 개로 무장한 목동이고 골리앗은

최신 무기로 무장한 전사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싸움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의 돌팔매 한 방에 블레셋의 영웅. 다윗은 조약 돌 몇 개로 무장한 목동이고 골리앗은

습니다. 골리앗은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다윗의 대승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날 다윗의 자신감, 용기,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탁월한 물매 기술은 자신의 능력이나 무모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누구신지 아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과 실패는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까이 있느냐가 승패를 판가름합니다. 위기 때, 골리앗은 블레셋의 신들에게 가까이 나아갔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골리앗은 패자가 되었고, 우상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힌 다윗은 승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특별새벽기도는 영적인 거리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 새벽을 깨우면 하루 종일 피곤하다, 이미 일어나서 잘 견고 있는데 왜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느냐, 첫날과 마지막 날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참여하면 되지,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눈도장만 찍으면 되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될 것이고 안 될 일은 안 될 것인데 왜 극성인가, ‘특새’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새’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 부흥회 아닌가, 매년 있으니 올해 불참해도 내년에 참석하면 되지” 등 등...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합리화, 부정적, 불신앙적인 생각 등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다윗의 삶이 위기의 연속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새벽을 깨웁시다. 특새가 기회입니다! 은혜와 능력을 주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먼저 은혜의 현장과 내 육체적인 거리를 좁히세요. 자주 만나는 사람과 정이 들고, 자주 찾는 식당이 내 집 같은 것처럼, 은혜의 자리도 자주 갈수록 내 자리가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석하겠다고 기도도 헌신하세요. 그러면 이번 특새가 특별히 나를 위해 준비된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내 마음의 거리를 좁히세요. 나 하나는 빠져도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은혜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

는 부정적인 생각, 적당히 믿어도 된다는 불신앙적인 생각, 그리고 참석하나하나 뻥하다는 비판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영적 부흥의 파도를 타고 평생 잊지 못할 은혜, 하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기도 응답 받기를 사모하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실패와 좌절 그리고 원망과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다시 걸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특새에 참석합시다. 특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은혜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거리를 좁히는 인생이 언더독 인생에서 오버독 인생으로 쓰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라”(시73:25).

# 푸/른/초/장

허상희 목사  
(뉴저지성도교회)



현대인들은 아무리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적어도 두 마리의 개는 다 키운다고 합니다. 그 개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이 틀 속에 갇힌 주인은 사건의 실체를 따지지 못하고 그저 선동에만 끌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 즉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언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스스로 보기에 때뚜기 같다고 하는 두 마리의 개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 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전에 자기 가족 무덤으로 사용된 몇 평 남짓 막벨라굴 외엔 자기 땅을 갖지 못했고 이삭도 야곱도 이 가나안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애굽의 품안에 숨겨두었다가 400년 종살이가 끝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위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예비하였던 것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예비해놓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같은 상황을 보는데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불신앙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기쁨과 부흥의 꿈과 신앙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보는데 전혀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다 못 한다 틀렸다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앞날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훗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13장 28절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13장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포기합시다" 철저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보고 외에는 아무 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부흥의 꿈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합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선 약속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정복하지 못한 불신앙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그토록 불가능한 일이라고 열을 내어 외쳤던 그들을 살펴보십시오. 한마디로 악평이었다고 단언합니다. 13장 32절,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불신앙의 눈은 상황을 악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 넣지 않

바릴 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나는 때뚜기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의 밭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때뚜기의 속성 중에 때뚜기는 때로 모여 다닙니다. 때로 모여 다니면서 항상 하는 소리가 불평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항상 온 회중들이 부르짖으며 곡하였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곡합니다. 여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갈에 망하게 하려 하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불평의 소리는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추진 약속의 땅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불신앙으로 거부한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장애물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목표와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뚜기 같다고 하는 사람에 반해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눈, 믿음의 안경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생각의 틀이 달랐어요. 패러다임이 달랐던 것입니다(민14:7-9). 이들 두 사람도 다른 열 사람과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같은 산야를 탐지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열 사람은 인간의 눈, 불신앙의 눈으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상황을 보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앙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틀 안에서 언약을 믿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의 시각 여하에 따라서 펼쳐지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날마

니요! 지금 올라가기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능동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올라가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동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면 세상은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강하라, 담대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뛰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땅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딪히는 인생, 불가능을 정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네피림의 장애물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을 축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세상 살다보면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외치십시오. "야, 이것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나안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 지나고 나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이 때 산 넘고 나면 축복의 땅이 펼쳐질 거야. 이 고난의 강이 갈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거야." 이 믿음의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 부흥의 꿈을 가지자 (민수기 13:30-33)

1.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목표도 없이 그저 분주하게만 뛰어 다니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입니다. 뚜렷한 목표와 부흥의 꿈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두 명 가운데 열 명은 이렇게 말합니

다. 13장 28절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13장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포기합시다" 철저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보고 외에는 아무 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부흥의 꿈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합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선 약속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정복하지 못한 불신앙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그토록 불가능한 일이라고 열을 내어 외쳤던 그들을 살펴보십시오. 한마디로 악평이었다고 단언합니다. 13장 32절,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불신앙의 눈은 상황을 악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 넣지 않

바랍니다. 별따쳐질 물러들어 좋은 소리 하는 것 못 보았어요. 원망과 불평을 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로 때뚜기 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벗어 버리고 믿음과 희망과 꿈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되라 부흥의 꿈을 가진 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같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것은 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활동하시는 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시각을 보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록교인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회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이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두 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딪히는 커다란 난관과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시각여하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다 보면 불평도 체질화되어 집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기뻐하는 삶이 내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여하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흥의 꿈을 가지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민노라고 하면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물러서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반석이 터져 샘물이 쏟아져 나올 때 그들은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만나가 내리지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에 부딪히니까 그들의 믿음은 맥을 추지 못하고 후퇴하고 맙니다.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문제 자체보다 문제를 과장하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삶의 현

3. 순종으로 올라가는 신앙의 사람 부흥의 꿈을 가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밭이다"(9절). 본문 30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얼마나 당당한 외침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밭이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거야!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요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내게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는 순간 젓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 집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합지졸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경,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에 부딪히니까 그들의 믿음은 맥을 추지 못하고 후퇴하고 맙니다.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문제 자체보다 문제를 과장하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삶의 현

결론 불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믿음의 사람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선언이라고 말 합니까? 민수기 14:24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값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 자손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우리의 밭이라고 곧 올라가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부흥의 꿈을 가지고 출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의 꿈을 꾸어봅시다. 그리고 외치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sheo1004@hotmail.com



광야에는 지도가 없다.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다. 동서남북을 모르니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 광야길을 잘 지나는 지혜는 오직 한 가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가는 것이다.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광야를 지나가는데, 온갖 소리들로 혼돈된 아주 혼란스럽기 그지 없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만 같다.

아무리 갈 바를 알 수 없는 거친 광야라 하여도, 믿고 따라 갈 수 있는 목자의 음성만 듣고 가면 된다. 그 음성을 듣기에 장애를 불러일으킬 만큼 혼란스럽다. 광야에서 살아나는 길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가면 된다.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내려놓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 생각, 경험, 소견을 내려놓는 만큼 잘 들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는 결코 은혜의 길이 되지 못하고, 짐승처럼 원망과 불평을 내어지

도이면 성경보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더 많이 본다면 제발 멈추어야 하지 않겠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더 많이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불쑥 내어 뱉지는 못했지만 그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분노**

세상에 분노하고 외칠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분노의 불길이 그칠 기미도 없이 연일 계속해서 드러나는가? 민주노총에서는 정치의 날로 하루를 택해서 학생은 학교를 가지 않고 자영업자는 스스로 문을 닫고, 직원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뒤집는 날을 계획한다고 하니, 조국의 미래가 너무나 참람할 것 같아 더욱 마음의 근심과 기도는 심층처럼 깊어진다.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분노**

쉽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해석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현상은 더욱 배후에 있는 본질을 집중케 하기 때문이다. 모든 혼돈의 상황은 두 가지 전제를 담으로 제시한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 그리고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본질회복이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백성됨의 자격으로 삶을 지탱해갈 것인가?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그 자리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기 위해서 빨리 내려놓아야 한다. 쉬 내려놓기 위해서는 통절하게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광야의 백성과 신앙의 분별력**

신앙은 현실이고, 현실은 다시 광야이다. 성도로서 광야 백성들은 인간 지도자의 실패와 흥망을 넘어서

은 마치 외지에 파견 나온 군인과 같다. 원래 소속 부대에 대한 명에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원 소속부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훌륭한 군인은 이 원리를 잘 안다. 그래서 파견지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고, 자신을 파송한 부대장의 뜻을 헤아리며, 그의 인정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다. 소속과 위치에 대한 분별력은 복잡분주한 현상에 쉬 매이지 않게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 내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단순 간결 분명하게 복종하는 성숙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한다.

**사실과 진실**

예수님 당시에 무리와 제자가 있었다. 그 구분은 신앙의 분별력에 기인한다. 우리는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고 듣고 보고 누리기 위해 따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간사 제자교회)



### 광야인생을 지나가는 지혜

- 사실과 진실, 착함과 분별력 -

르는 절망의 장소가 되고 만다. 그곳에는 목자가 인도하는 은혜는 찾을 길이 없고, 오직 책망과 심판의 두려움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소란스런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 의지했고 신뢰했던 지도자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온갖 소리들이 무성하게 메아리치는 것을 본다. 소란스런 광야이다. 질서 있는 쫓겨나기를 폄하하는 말이 아니다. 어느 집 단이든 지도자의 절망과 타락은 갈 바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광야의 무리들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기 마련이다

소란스러운 광야가 위험한 것은 각자가 소견에 옳은 목소리를 제한 없이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승전-순살과 근혜'로 끝나는 나라상황이 모든 일들이 퍼즐로 맞추기도 모자라 깨어 매어진 듯 이야기들을 난무케 하는 것을 본다. 어떤 목사님은 마치 80년대 학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고민했을 법한 내용들을 다시금 꺼내는 것 같다고 말한다. 또 어떤 목사님은 너무 황망한 나머지 오래 동안 기도를 할 수 없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목사가 자신의 기도를 방해받을 정

가 크다. 세상이 공평하지 못한 줄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공평하리라 기대했던 지도자의 무능과 실패가 너무 선명하고 분명해서, 기대한 만큼 감정의 배신감이 이들을 흔드는 것이다.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졸업을 할 수 있고, 밤을 새워 공부할 하여도 쉽지 않은 제한된 입학사정을 무사 통과했다는 현실의 사건들은, 오히려 거대한 정치적 패 등을 생각하며 기도한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거우면 사이버금식을 선언하기도 한다. 기도할 수 있는 만큼 큰 보고 들으라고 권면도 한다. 그러나 결국 회복의 결론을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도를 회개 된다. 결론은 파국이 아니라 회복이 아닌가?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모든 정의는 결국 파괴적인 분노의 감정에 매일 따름인 것이다.

**공의롭지 못한 광야와 회복의 결론**

소란스러운 광야, 공의롭지 못한 광야, 신뢰하기 어려운 지도자의 실패 등을 생각하며 기도한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거우면 사이버금식을 선언하기도 한다. 기도할 수 있는 만큼 큰 보고 들으라고 권면도 한다. 그러나 결국 회복의 결론을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도를 회개 된다. 결론은 파국이 아니라 회복이 아닌가?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모든 정의는 결국 파괴적인 분노의 감정에 매일 따름인 것이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의외로 답은

아 한다. 영원한 지도자를 바라보며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는 그 어떤 화급을 다루는 문제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속하는 일이다. 광야는 광야이다. 현상에 매달려 가면, 나중에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조차 상실하게 된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한히 착함과 무굴호인이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착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착하기만 한 것은 신앙의 목표는 아니다.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며, 참된 진리 앞에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가 바로 신앙의 분별력을 가진 성숙한 성도인 것이다. 그 분별력의 기준이 무엇인가? 목사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광야 가운데 잘 듣는 것이다.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이들만이 세상의 혼란한 현상 앞에서 기도하며 지혜롭게 광야를 지나게 된다.

분별력은 우리의 위치와 소속을 분명하게 한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왜 광야로 보내셨는가? 광야의 복잡다변한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 광야 인생의 본질

하는 자들이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주님을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광야를 지나가는 삶은 철저히 이 제자의식이 있어야 한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이라는 것은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말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성도의 분별력은 사실을 침묵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것에 앞서서, 과연 이 사실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 더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덕을 세우는지 말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거기까지 가게 될 때, 그 사실은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복되게 하는 진정한 사실로서의 진실이 되는 것이다.

**합리적 의심과 해석**

교회공동체가 소란스러워지는 배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성도들이 오감으로 경험한 사실을 열심히 진리처럼 가심거리 화 하는데 있더라는 것이다. 광야교회 뿐이겠는가? 광야 세상은 더할 것이다.

(7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어떤 목사님의 책에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다는 것을 타락한 천사가 인간 여성을 연모하여 아내를 삼아 소위 반 천사, 반 사람인 네피림 즉 거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데 받아들여가 어렵습니다. 천사는 영물인데 어떻게 사람과 결혼하여 애기를 낳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근거를 유다서 5-7절과 베드로후서 2장 4-8절을 주장하는데 그곳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요?

**A:** 좋은 질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을 천사들이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건강한 셋째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 없이 세속적이며 범죄한 가인계의 딸들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불신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이 육체가 되는 것 즉 인간이 육적 욕심을 따라 부패하게 되어 결국 그것이 노아홍수의 원인이 되고 120년 후에 홍수심판이 와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구절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이 되고 실낙원의 결과를 낳았다면, 두 번째 중요한 인간의 타락은 혼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육신의 아름다움만 보고 이끌려

### 창6:2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 사람의 딸들은 범죄한 가인의 후손을 의미

불신결혼으로 혼합하게 되자 결국 부패 타락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홍수를 일으켜 심판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경신학자인 박윤선 박사의 창세기 주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천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다. 이런 해석은 그 시대의 경향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천사들이 옳다면 인류타락사가 아니라 천사 타락사로 돌변하는 셈이니 자연스럽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의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논거를 유다서 6-7절에 둔다. 거기에 '소돔과 고모 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그 도시사람들이 천사들처럼 다른 색을 따라 간음하였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색은 헬라원어로 보면 "살코스 에텔라스"로 다른 육체라는 뜻이니 천사들은 육체가 아니므로 다른 색(육체)이란 말은 그들과 대조시킨 말로 볼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아내를 삼는지라란 말의 히브리 원어는 영구히 아내를 취하여 동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번 간음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천사들이 가정을 이루고 영구히 살고 있다는 사상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다"고 돼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인간 여성을 연모하여 아내로 삼고 결혼해 반천사 반인간을 낳은 것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억측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 영물인데 인간과 성관계를 통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성경을 억지로 푸는 억측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에 보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하면 천사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존재가 되고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물인 천사가 사람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입니다.

## 2017 YWAM Senior mini DTS

# 인생의 전환점, 지금은...



2 Corinthians 6: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For he says, "In the time of my favor I heard you, and in the day of salvation I helped you." I tell you,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교육일정**

2017년 1월 9일~2017년 2월 3일(4주)

도미니카 베이츠 도착일자는 1월 9일이며 베이츠 출발일자는 2월 3일 부터입니다.

**참가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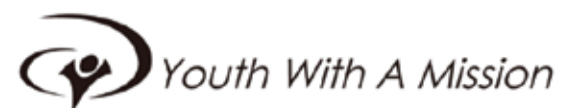
아래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MAIL:seniordtsdr@gmail.com

**지원자격**

55세 이상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으로써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기독교인 중에서 최근 마약, 알코올, 담배 및 기타 중독이 없으신 분

**기타문의**

미국 +1 808-345-0807(공 현 선교사), 070-4606-6628 (인터넷문)  
+1 808-333-2029(지미 채 선교사)  
+1 301-655-2209(전 구 선교사)  
도미니카 공화국 +1 809-914-1930(김현철 선교사)



Km 18 Carretera Yamasa Santo Domingo Norte, Republic of Dominicana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호(Ho)



인도의 북부 Bihar지역 내에 위치한 Chota Nagpur 고원의 삼림지대에서 생활한다. 호족집단은 인도의 북서부 근처에 밀집된 서부 벵갈, 방글라데시, 네팔의 일부지

역과 북부 Orissa 지역에 거주한다. 그들은 호어(Maunder어의 Lahore 방언)를 말하기 때문에 인도의 Saints족과 Mounds족처럼 Maunder어를 사용하는 종족들과 함께 집단을 이룬다. '호(ho)'라는 말은 사람을 의미한다. 호족은 그들의 신법에 의해 다른 민족 모두를 이방인 또는 외부인으로 여기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그들의 독립적인 때로는 고립적인 본성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영제국, 무슬림과 같은 수많은 외부인들이 호족을 지배한 적도 있었으나 그들의

강한 독립성은 힌두의 지배로부터 그들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

삶의 모습

호족은 비록 그들의 30%가 힌두교 신앙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그들 자신을 인도 카스트제도의 일부가 아닌 구별된 종족으로 여긴다. 인도를 구성하는 78%의 힌두인과는 달리 호족은 육류를 먹고 쌀로 만든 맥주도 마신다. 호족의 문화는 자연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인도의 세속적인 민족들과 구별된다. 그들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많은 필수품들을 제공해주는 삼림환경 속에서 가장 편안하다. 식물의 뿌리, 잎, 꽃, 목초, 과일, 나무열매, 베리, 버섯, 누에고치 등이 식용, 무역용, 상업용으로 사용된다. 그들의 주요 농작물은 발효시켜 맥주를 만드는 쌀이다. 토양 밑에서 발견되

는 광물의 채광은 도시 근방에서 최근 개발되고 있는 기초 산업이다.

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신앙

호족의 69%는 뱀 또는 원숭이와 마법과 신들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령과 같은 씨족의 신을 숭배하는 애니미즘주의자이다. 그들은 세상이 자연적 대상물에 존재하는 bongas(정령)로 가득하다고 믿는다. 정령들은 자신들을 달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병과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기와 맥주를 정령들에게 선물로 바친다. 사람이 정령을 숭배하면 그의 스승과 그 사람은 shaman(주술사 또는 성직자)이 된다. 주술사는 촌락의 '수호신'에게 호족의 사업을 보살피주고 그들을 악령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구한다. 호족은 사람의 그림자가 그의 삶을 통해 성장하고 개발되는 인

격과 성품이라고 믿는다. 그림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그의 그림자는 그의 가족이 기거하는 '죽은 집'과 결합된 그의 집으로 돌아간다. '죽은 집'은 그들은 얼마나 존중했는가에 따라 그 가족을 돕거나 괴롭힌다.

필요로 하는 것들

신약성경의 일부가 호어로 출판되어 있으며 현재 7개의 선교단체가 호족 가운데 사역중이다. 호족을 복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지만 그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하여 그들 중 신자는 단지 5%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더욱 뜨거운 기도와 선교활동이 강하게 요구된다. 영화 '예수'와 기독교 라디오 방송은 호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연세대 총여학생회장에 동성애 신학생 당선

연세대 총여학생회장 선거에서 레즈비언 신학과 학생이 당선됐다. 동성애자 총학생회장이 당선된 것은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 이후 두 번째다.



마태영(신학과3)씨는 지난 22-25일 치러진 연세대 제28대 총여학생회 선거에서 86.9%를 얻어 당선됐다. 마씨는 총여학생회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력서 첫 줄에 '연세대 동성애자 중앙동아리 컴퓨터대에서 활동했다'고 기재한 바 있다. 컴퓨터대는 1995년 설립된 연세대 동성애자 동아리다.

컴퓨터대 회장단은 페이스북과 대자보에 '컴퓨터대는 마태영 후보의 커밍아웃을 지지한다'는 글을 발표하고 "마씨 이후로 연세대에 동성애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의 존재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 용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우리 동아리원인 마씨의 피난처가 돼줄 것"이라며 "그의 용기가 만든 불꽃이 쉽게 꺼지지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교사가 설립한 연세대에서 동성애자인 신학생이 학생회장에 당선됐다는 소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탄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아이디 '문OO'은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도 동성애자들이 총학을 장악하고 있다. 하나님의 대학 연세대를 위해, 대학가에 동성애 확산 방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이디 '신OO'도 "청년들이 진리를 모르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모세대와 교회, 교수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선 수동연세오양병원장은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도 동성애자들이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국민일보보는 마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외신, 박대통령 담화 주목... "조기퇴진 표명" 국회에 밀긴 것

외국 주요 언론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를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각 매체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내놓을 것이라는 사실부터 긴급기사로 예고해 한국의 정국상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이러 실제 담화 발표 이후에는 "박대통령이 국회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거나 "임기 전 퇴임할 준비가 돼 있다" 등 제각각 다른 부분에 방점을 찍은 기사들을 내놓았다. 일부 매체는 주요 발언만 그대로 전해 해석을 유보하는 모습도 보였다.

AP통신은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이 안정되지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밝혔으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 이래로 사임하는 한국의 첫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BBC 방송도 "박 대통령이 물러날 의사가 있다(willing to resign)고 밝혔다"며 "임기 단축을 포함해 자신의 앞날에 관한 모든 것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임기가 끝나기 전 퇴진할 준비가 됐다"고 표명했다"고 전했으며 아시아신문도 박 대통령이 사실상 조기 퇴진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긴급 편성된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박 대통령의 담화를 동시통역으로 중계하며 주요 발언을 자막으로 알렸다. 각 매체는 후속 보도에서는 야권이 내달 2일을 박 대통령 탄핵안 의결 시기로 잡고 있음을 전하면서 담화의 속뜻이 퇴진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을 보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박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

기 전에 사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면서도 이를 "엄박한 탄핵 표결을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풀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박 대통령이 국회가 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분석가들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려 '지연작전'을 펼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전했다. AP, AFP, 로이터통신은 모두 이번 담화가 탄핵을 면하려는 '꼼수'라는 야권의 반응을 함께 실었다.

반면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르면 내달 2일 야당들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때에 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BBC는 "이번 발표는 꼭 사임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물러나겠다는 제안"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의 남은 날들이 이제 심각하게 제한됐음을 암시한다"고 상반된 해석을 동시에 전했다.

그동안 최순실씨 국정개입 파문을 비중 있게 전해온 일본 언론은 향후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했다. NHK는 박 대통령의 담화대로 실행되면 1987년 한국 민주화 이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대통령이 처음으로 퇴진하게 된다고 전한 뒤 한일중정장회의 개최 여부와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의 향후 등을 거론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담화에 일본 정부가 충격을 받고 있다며 양국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사의 표명은 일본 정부로서는 뼈아픈 오산이 됐다고 전했다.

'대선 재검표'에 화난 트럼프 '클린턴 이메일' 수사 가능성

"힐러리 클린턴 캠프가 대선 재검표를 참관하고 나섰으로써 클린턴이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한) 형사 기소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오랜 친구, 네거티브 전문가인 로저 스톤이 28일 뉴스팩스TV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클린턴 대선 캠프가 녹색당 질 스타인 전 대선후보가 주도하는 위스콘신 주 등의 대선 재검표 활동에 공식 참여하기로 하는 등 결과에 대한 불복 논란이 이는 움직임에 보임에 따라 이메일 스캔들을 덮기로 했던 트럼프 당선인을 다시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톤은 "힐러리의 행동이 자신이 기소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힐러리 측은 과거 사기나 부적절한 선거조작 여부가 없는지 확인될 때까지 대선 승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한 트럼프를 호되게 비판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임장이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스타인인 재검표를 위한 비용 550만-700만 달러를 건넸다"면서 "클린턴이나 민주당 거대후원자인 조지 소로스가가 이 비용을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2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클린턴을 기소할지에 대해' '테이블에서 완전히 치워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내가 매우 강력히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녀를 기소하는 것은 미국에 매우, 매우 부정적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나는 클린턴 부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정말 그렇다"며 "그녀는 많은 것을 겪었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상당히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메일 스캔들을 특검수사해 클린턴을 감옥에 보내겠다'던 대선 기간 공언과는 달리 대통령 취임 후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등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클린턴 캠프가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위스콘신 주는 물론 향후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주의 재검표 작업에도 참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비치고 때문이다.

당장 트럼프는 26일 대통령직 인수위 성명을 통해 "클린턴은 내가 승리 연설을 하기 직전 전화를 걸어와 선거 패배를 인정했고 결과가 나온 후에도 그랬다"며 "민주당들, 자신들이 이긴다고 잘못 생각했을 때는 선거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더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탄핵 문턱서 살아났지만 명예 실추된 미 대통령들

'중도 하차' 문턱까지 갔다가 임기를 보전해도 명예를 지키기 어렵다. 탄핵 요강까지 갔던 앤드루 존슨(1808-1875)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로널드 레이건(1911-2004) 전 미국 대통령도 탄핵으로 자리를 잃을 뻔했다. 탄핵이 추진된 것 자체만으로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미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재판을 받은 것은 1868년 존슨이다. 공무원 파면에 상원의 동의를 필요하다는 법을 어기고 국방장관을 파면한 탓이다. 탄핵안은 상원까지 갔다가 한 표 차로 부결됐다.

클린턴은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 추문을 일으킨 '지피게이트'로 탄핵 소추됐다. 그는 대국민 담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대신 간통 자체가 위법은 아닌 점을 내세워 '위법은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히어리는 1998년 12월 클린턴이 위증을 하고 르윈스키에게도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사법방해 등을 사유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탄핵안이 이듬해 2월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성 추문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 덕이었다. 클린턴은 특별검사와 합의해 퇴임 하루 전인 2001년 1월 위증을 인정하고 기소를 면했다.

레이건은 1986년 적국 이란에 무기를 몰래 팔아 번 돈으로 니카라과 반군 '콘트라'를 지원했다가 탄핵될 뻔했다.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에 납치된 미국인을 구하기 위해서였지만 반군 지원을 금지한 법과 테러국과 교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겼다. 그러나 특검이 레이건의 혐의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탄핵 소추되지 않았다. 기소된 측근들은 목베권을 행사했고, 정부도 정보공개를 거부한 탓에 증거가 부족했다.

인공지능 인력 IT 기업 썩어... 학계 두뇌유출 심각

학계의 인공지능(AI) 전문 인력들이 대거 IT기업들로 빠져나가고 있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다.



10년전 AI 분야에 일대 돌파구를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FT 인터뷰에서 잇따른 두뇌 유출로 학계의 연구가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벤지오 교수는 오늘날 AI가 각광을 받는 데 기여한 딥 러닝 기술을 개척한 인물이다. 딥 러닝은 컴퓨터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로 구축한 머신 러닝(기계 학습) 기술의 일종이다. AI 전문가였던 벤지오 교수의 동료 2명은 최근 높은 급여에 끌려 IT업계로 자리를 옮겼다. 토론토 대학의 조프 힌튼 교수가 구글로, 그의 제자인 안 르퀴이 페이스북에 각각 합류한 것이다.

역시 AI 전문가인 벤지오 교수의 동생 새미는 이미 구글에 몸담고 있다. 한편 초기 개척자의 한 사람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앤드루 응 교수는 현재 중국의 인터넷 검색엔진 기업인 바aidu의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벤지오 교수는 그의 연구 성과가 더 큰 반향을 얻을 수 있도록 학계에 남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나는 한 기업의 돈주머니가 아니라 전체 인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벤지오 교수의 명성 덕분에 몬트리올은 AI 연구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몬트리올 대학은 물론 이곳에 자리잡은 맥길 대학은 1천500명의 AI 연구원을 두고 있다. 이처럼 AI 두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대학에 근무하는 AI 전문가들의 이탈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미국의 IT 대기업들의 AI 사업에 역점을 둔 탓에 고급 인력들이 서서히 빠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1년 전 우버는 AI와 로봇 공학 연구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미국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연구팀을 뚝 떼려 갖고 후속 조치로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는 연구소를 현지에 설립했다. 구글은 몬트리올에 자체적으로 딥 러닝 연구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는 이미 대규모의 AI 연구원들을 직접시켰고 그 상당수는 학계에서 영입한 인재들이다.

"카스트로는 내게 아버지 같은 분"

"그는 날아오르라고, 꿈을 꾸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없었으면 혁명의 성취는 이제 우리 손에 달렸습니까?"



2000년 미국과 쿠바의 양육권 전쟁을 촉발시켰던 '난민 소년' 엘리안 곤살레스(22·사진)가 지난 25일 타계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 대한 추억을 털어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곤살레스가 27일 쿠바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카스트로는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던, 나의 아버지가 다름없던 분"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곤살레스는 5살이던 1999년 11월 어머니와 보트를 타고 쿠바에서 미국 플로리다주로 밀입국하려다 풍랑을 만났다. 일행은 모두 숨졌지만 그는 미국 어부에 의해 구조됐다. 해상에서 구조된 난민은 본국에 돌려보내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에 사는 친척과 쿠바의 생부가 양육권 쟁탈전을 벌이고 카스트로까지 직접 개입하면서 곤살레스의 송환 문제는 미국과 쿠바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다.

결국 2000년 4월 미국이 무장 연방요원까지 투입해 곤살레스를 아버지가 있는 쿠바로 송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당시 그를 구해준 어부 품에 안긴 곤살레스가 연방요원의 총구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사진은 미국과 쿠바의 갈등을 상징하는 기록이 됐다.

카스트로는 고국으로 돌아온 곤살레스의 초등학교 졸업식까지 참석하며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곤살레스는 사관학교를 나와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곤살레스는 인터뷰에서 "카스트로는 나를 쿠바로 돌아오게 도와주고 힘들 때 우리 가족과 아버지의 친구가 돼 줬다"고 회고했다. 이어 "카스트로를 이야기하려면 과거시제보다 미래시제를 택해야 한다"며 "나를 포함해 카스트로의 가르침으로 자라난 모든 젊은 이들이 그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북극 11월 이상고온...예년보다 20도 상승

북극의 11월 기온이 예년보다 20도가량 치솟았다. 기온이 올라도 너무 올라 유럽과 미국 과학자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북극의 이달 기온이 영하 5도로 예년 평균 수준인 영하 25도보다 20도가량 상승했다고 전했다. 덴마크기상연구소(DMI) 라스무스 톨보는 "1958년부터 기온을 체크해 왔는데 이 같은 현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엘니뇨 현상이 꼽힌다. 엘니뇨는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율해까지는 엘니뇨보다 더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등장하기도 했다. 에릭 홀트하우스 미국 기상학자는 "(슈퍼) 엘니뇨가 북극의 기온 변화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제트기류가 약화된 것도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니퍼 프랜시스 미국 리트거스대 기상학자는 "북극과 그 아래 지역 기온 차가 줄면서 따뜻한 공기를 막는 역할을 하던 제트기류가 무너졌고, 이어 북극 기온 상승이 심화되는 연쇄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제트기류는 울겨를 우리나라의 한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침투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한반도와 중국, 미국, 영국 등이 강추위를 그대로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프랜시스는 "기후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돌아서길 바란다"며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 그랜드캐년이 노아홍수에 의해 형성됐다고 보는 이유 (4)



**박창성 박사**  
세계창조선교회 회장

## (4) 콜로라도 강은 다른 곳보다 높은 고원을 지나갔다

콜로라도 강의 이동경로를 살펴 보면,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콜로라도 강이 주위보다 수백 미터나 높은 카이밥 고원(Kaibab Plateau)을 지나간 것이다. 카이밥 고원은 콜로라도 고원을 이루는 여러 개의 고원중 하나인데, 옆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용하여 지층이 휘어져서, 주위보다 높게 솟아오른 곳이다

Figure 8. 콜로라도 고원을 남북 방향으로 자른 단면도. 콜로라도 고원 북쪽에 두껍게 쌓여있던 지층이 침식당하여 없어진 다음, 그랜드캐년이 형성되었다. 그랜드캐년의 깊은 계곡 안에 흐르는 콜로라도 강이 주위보다 높은 카이밥 고원을 지나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천은 높은 장애물을 만날 경우 낮은 곳으로 돌아갈 뿐 결코 높은 곳을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아래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콜로라도 강은 카이밥 고원을 피해서 낮은 곳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런데 콜로라도 강은 왜 방향을 급하게 바꾸어 높은 곳을 지나갔으며, 갑자기 넓어진 그랜드캐년 가운데를 흐르게 되었을까? 상식적인 해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랜드캐년의 경우와 같이, 하천이 높은 산을 뚫고 가로질러 흘러가는 지형을 워터갭(Water Gap, 水隙)이라고 한다. 워터갭은 전세계에 천여 개나 발견되었다. 그랜드캐년은 가장 긴 워터갭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계곡이 여러 곳이 있고, 많은 워터갭을 가진 곳으로는 애팔래치아 산맥이 유명하다.

워터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 지형은 지질학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미스터리 중의 하나다. 동일과정설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지질학자들의 대부분은 하천이 평지를 먼저 흐르고 있었고, 그 중 일부 지역이 나중에 서서히 솟아오르게 되었는데, 하천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계속 침식했다는 가설을 주장한다.

그랜드캐년의 경우는, 먼저 콜로라도 강이 평탄한 지형을 흐르고 있었는데, 카이밥 고원이 습곡 작용으로 서서히 주름이 잡히며 솟아오르자, 콜로라도 강이 더 빠른 속도로 계속 침식해 내려가고, 풍화와 빗물의 침식으로 계곡이 넓혀져서 현재의 그랜드캐년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지면이 움기하는 시기와 속도, 그리고 하천이 침식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속도가 잘 맞아 떨어야 하기 때문에, 워터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다. 그러나 전세계에 천여 개나 있는 많은 워터갭들이 존재하고, 콜로라도 강이 흐르기 전에 카이밥 고원이 이미 솟아올라 있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랜드캐년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타당하지 않다.

◎ 대홍수는 높은 산도 뚫고 지나갈 수 있다!  
반면에, 대홍수 이론은 워터갭이 형성되는 원인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대홍수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높은 산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면 위를 모두 덮는 대홍수가 후

퇴하면(A), 수위가 낮아지면서 일부 높은 지면이 드러나고(B), 낮은 곳이나 약한 곳으로 물이 모여 더욱 빠른 속도로 흐르면서 침식시켜, 깊은 골짜기를 만들게 된다(C), 홍수가 끝난 다음, 계곡 사이로 빗물이 모여 하천을 이루고 흐르게 되어, 워터갭이 형성된다(D).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나중에 워터갭 사이로 흐르게 된 작은 하천이 오랜 세월 침식해서 큰 계곡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바르게 해석하면, 전세계에 많은 워터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전지구적인 홍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랜드캐년은 거대한 워터갭의 하나로서,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결론**  
아무리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신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현대 과학기술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정교한 기관들로 이루어진 자신의 몸을 늘 보면서, 물질에서 생물이 저절로 발생한 후, 오랜 세월이 걸려서 고등동물로 조금씩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고 믿는

다.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되는 일들로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대륙마다 두껍게 쌓여져 있는 광대한 퇴적층과 그 속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생물들의 화석, 그리고 그랜드캐년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침식 지형도, 오랜 세월 동안 지금처럼 천천히 풍화되고 비가 내려 깎이



Figure 9. 그랜드캐년, 카이밥 고원과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경로를 하늘에서 내려다 본 사진. 이상하게도 콜로라도 강은 주위보다 수백 미터나 높은 카이밥 고원(가운데 검은 부분)을 가로질러 지나가서(진한색 화살표 방향), 갑자기 넓어진 그랜드캐년 가운데를 흐르고 있다. 만약 콜로라도 강이 이미 존재한 카이밥 고원을 만났다면, 높은 카이밥 고원을 피해 낮은 곳으로 돌아가야만 했을 것이다(연한색 화살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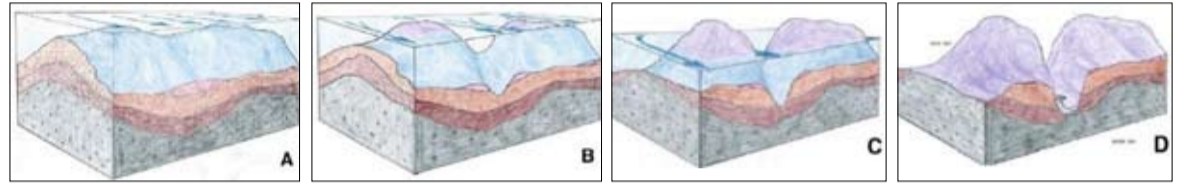


Figure 10. 워터갭이 형성되는 과정. 대홍수가 후퇴하면서 수위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현재 계곡 사이로 흐르고 있는 작은 하천은 실제로 큰 계곡을 만든 주된 원인이 아니다.



Figure 11. 애팔래치아 산맥의 델라웨어 워터갭. 사진에 보이는 강물이 높은 산을 가로질러 사행천의 형태로 구불구불 흐르고 있는데, 그랜드캐년에서 카이밥 고원을 가로질러 흘러가는 콜로라도 강과 매우 유사하다. 이와 같은 워터갭은 산 전체를 덮는 대홍수 물이 지나갈 때 형성될 수 있으며, 전세계에서 천여 개나 발견되었다. 이것은 과거에 전지구적인 홍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고 쌓이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양의 물이 짧은 기간 동안 한 일을 적은 양의 물이 오랜 세월 동안 한 일로 바꾸어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무슨 증거가 있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랜드캐년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아 홍수의 증거는 세계 도처에 널려있다. 작은 홍수가 일어나도 흔적이 남게지는데, 지구 전체를 휩쓸었던 노아 홍수의 증거들이 왜 없겠는가?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는 안목이 없는 것이다. 그 눈이 열리면, 많은 증거들을 볼 수 있다.  
창조과학자들이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그랜드캐년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억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학적이며 타당성 있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많은 증거들 중에서 그랜드캐년은 가장 잘 보존된 대표적 증거이다.  
park@wcmweb.org <끝>

(5면에서 계속)

지금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사실을 가지고 책임지지 못할 각색된 해석들을 제 2, 제 3의 자생된 자료들을 근거로 얼마나 많이 쏟아 붓고 있는가? 성도들도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된 사실과 진실 속에서 호도된 언어를 전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증거의 책임을 져야할 지

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비정상적인 행태로 혼란에 몰입하는 것을 본다. 99가지를 제대로 보도한다 하여서, 1가지를 거짓 혹은 의도를 가지고 보도한 것이 절로 면죄부의 대상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하물며 말과 행위로써 정치를 할 지도자들의 입에서조차도 확인되거나 합리적 의심이 결여된 이야기들을 쏟아내

는 것을 보면 조국의 미래에 대해 마음을 졸이게 한다. 진실에서 너무나 먼 이야기들,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들과 소견에 옳은 해석들, 그런 것이 혼란을 더욱 격하게 만들어가는 보게 된다.

조국사랑, 사랑만큼, 언어절제  
참된 신앙은 서 말의 가루에 서 말의 누룩이 필요 없는, 작은 누룩

으로도 충분한 변화의 능력을 가지 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광야세상에서 변화의 능력은 무엇인가? 진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인간 지도자의 흥망성쇠를 넘어서는 영원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이 땅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며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와 내려놓음이다. 한마 디로 본질회복이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떤 성도의 삶을 살며, 어떤 백성들의 자객으로 삶을 지탱해갈 것인가?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그 자리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한다. 쉬 내려놓기 위해서는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지난 칼럼의 결론을 다시 재론하며 마무리하기 원한

다. 힘들고 혼란스러워보여도 조국 사랑의 마음은 변치말자. 비판하고 아파하는 만큼, 감절로 기도하자. 진실과 덕을 세우는 언어의 절제를 따르자.

davidnjon@yahoo.com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7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7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7.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7)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2(Fri)-15(Mon), 2017
- 2) Place: Anchorage, Alaska USA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Jeremiah 31:31-37
  - (2) NT Exegesis Text - John 8:13-27
  - (3) Thesis Topic - Compare and contrast the Christian and Islamic view of God. Discuss its implications on the Christian life.
  - (4) Sermon Text - 1 Kings 2:1-9
- 3)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2.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kfpcny@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7.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FPCNY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7.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7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1st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6-19, 2017).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2-15, 2017 Anchorage, Alaska) through Rev. Sunghoon Cho.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Sunghoon Cho / Address: 37-60 61st Street Woodside, NY 11377 U.S.A.  
Cell : (718) 986-8442 E-mail : kfpcny@g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Rev. Yun Joon Hur (718) 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Sunghoon Cho (718) 986-8442 (kfpcny@gmail.com)
-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John E. Jho (845)598-6757 (drjho@hotmail.com)



# 리더십 코멘터리 (31)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 고달픈 자리라 해도 버림을 자리를 지켜라

### 독립영웅의 리더십 (Effective Decision Making)

100달러와 인물이 유명한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정치인 중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특별한 공식적 지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미국 독립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프랭클린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특별한 기술 (Effective Decision Making)을 사용했다. 그는 중이를 반으로 나눠 한쪽에는 찬성, 다른 쪽에는 반대라고 적었다. 그리고는 3-4일 정도 생각을

방향에서 잡아당김으로 충성심도, 우선순위로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무기력하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나오미의 자부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를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유부부단했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사무엘을 기다릴 것인가에 대해 유부부단했다. 또한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줄 것인가 배반자를 풀어줄 것인가에 대해 유부부단했다. 어떤 조직의 리더를 막론하고 리더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리더

목화농사를 망쳤던 곤충인 '목화다래바구미'를 위한 기념비까지 세웠다. 기념비문에는 '목화다래바구미와 그것이 가져다 준 번영을 진심으로 기념하면서'라고 써어 있다. 아픈 만큼 성숙하고 성장한 것이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존 파이퍼는 다음과 같이 고난을 5R로 정의한다. 고난에 처한 리더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시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회개(Repentance):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높여 보물 삼는 데에서 돌이키도록 부르는 것이다.
- 의존(Reliance): 고난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부르심이다.
- 의로움(Righteousness): 고난은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의 징계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 상급(Reward):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잃는 것의 천배나 더 보상받는 엄청난 천국의 상급을 이루게 한다.
- 기억나게 하는 것 (Reminder):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세상에 보내어 고난 받게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손길임을 기억나게 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를 보호하고 계

인생의 가치는 결정된다. 세상은 확신을 갖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 길을 제공한다. 목적이 분명하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 어느 이름 없는 무명의 영웅은 미켈란젤로에게 미술의 기초를 가르쳤고, 어느 무명의 영웅은 아인슈타인에게 수학의 기초를 가르쳤다. 일상에서의 사소한 삶들이 역사의 영웅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 것이다. 리더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침묵을 깨고 지금 시작하라. 작은 시작으로 인해 당신이 미래의 영웅을 만드는 무명의 영웅이 될런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깊은 산속의 초가 옆에 놓여진 역사관을 지나가다 말라 죽어있는 역사를 보면서 지혜자에게 물었다. "저 역사들은 한여름 무성한 푸르름을 자랑하다가 이제는 아무 슬모없이 그렇게 말라 죽어 있군요." 나그네의 말에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않소. 저 역사들은 저렇게 아무 볼품없이 서 있지만 아직까지 제 역할이 남아 있어서 저렇게 서 있지요." "아니, 아직까지 역할이 남아 있잖아요?" "아직도 어미 역사로서 할 일이 있는 것이지요. 어린 새끼 역사들이 다 자랄 때까지 버림대가 되어주는 것이랍니다."

리더는 바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 '고독한 결정' 이 리더 몫...작은 시작으로 미래의 영웅 만들지도 고난은 변장된 축복, 잠깐이면 지나가나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

하면서 여러 가지 모티브(motive)에 따라 떠오르는 생각들을 종이에 적었다. 그렇게 찬성과 반대의 원인과 이유들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적은 후 각각의 비중과 무게를 생각하고 서로 비중과 무게가 같은 것끼리 지워 나간다. 찬성하는 이유 하나와 반대하는 이유 두 가지의 비중과 무게가 같다면 이 세 가지를 지우고 반대하는 이유 둘과 찬성하는 이유 셋의 비중과 무게가 같다면 다섯 가지를 모두 지운다. 이렇게 비중과 무게가 같은 것끼리 지우고 나서 1-2일 정도 더 생각한다. 새로운 원인과 이유가 떠오르지 않으면 곧바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프랭클린은 정확한 정보를 분석 평가하여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리더로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했다.

타고난 유머로 유명한 작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적었다. "나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결정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유부부단한 자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한다. 헬라이어에서 '두 마음'이란 문자적으로 '두 개의 혼'을 의미한다.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의 임무는 매순간마다 결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최적의 결정,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리더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물리치고,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리더의 임무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리더는 고독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리더가 내리는 냉철한 결정도 주변의 입김이 배제된 '고독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연말은 각계각층에 있는 리더들이 힘든 결정, 고독한 결정을 해야 할 때다.

### 고난속의 번영의 리더십

미국에서 목화가 매우 귀했던 시절, '목화다래바구미'라는 곤충이 멕시코에서 미국 남부로 넘어와 목화밭을 망쳐 놓았다. 농부들은 뜻밖의 재난으로 콩이나 땅콩을 비롯한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해야만 했고 소, 돼지, 닭들을 어떻게 사육하는지도 배워야 했다. 그런데 농가의 소득은 목화만 재배할 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앨라배마(Alabama) 주의 사람들은 단일 농작물만을 재배하다가, 그 목화다래바구미 덕분에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큰 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처음에 자기들의

시며 나를 붙잡고 계신다. 리더는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고난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완전한 것임을 분명히 믿고, 또 의지해야 한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고난 중에 처한 리더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믿음인 것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에다가 축복을 싸서 주신다. 고난이 가져다 준 번영을 진심으로 기념한다.

### 말라 죽어있는 역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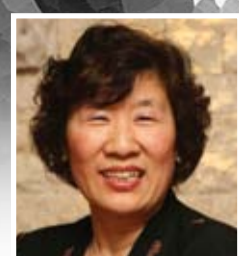
사람이 죽으면 묘비에 두 개의 날짜가 새겨진다. 탄생일과 사망일이 그것이다.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의 거리를 일생이라 부른다. 누구에게나 한 번만 주어진 일생의 거리를 아는 사람은 없다. 비록 건강해서 백수를 누린다고 해도 영원의 세월에 비하면 덧없는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사는 길이가 아니라 사는 방법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달려 있다. Long Time이든 Short Time이든 하늘로부터 허락 받은 일생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12월이 되었다. 2016년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 당신이 처한 환경이 비록 빛바랜 역사같아도 볼품없는 고달픈 자리라 해도 깨끗하게 버림을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거침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세월은 흘러간다. 고요하게 흐르는 세월의 물결 위에 종이배 낙엽이라도 띄워보자. 숨 가쁘게 몰려오는 홍수처럼 모진 세월이라면 다윗의 노래를 부르며 되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절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절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광강의 복을 주시니이다(사29:10-11).'

조직에는 버림목이 있어야 한다. 리더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며 바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구성원들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목표를 향해 나갔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의심과 균열이 생기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위기의 순간에 의심과 균열의 자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림목이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 사울의 썩과 다윗의 썩의 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확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삼상24:17).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24:20).

눈에 볼 수 없고 쫓으려면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중심에 가장 소중한 여기를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미미한 무명인이 왕이 되어 불안한 사울에게는 확고한 왕위가 너무도 중요한 일하기에 누구라도 왕위에 위협적인 존재는 그의 적입니다.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한 생생한 몸부림이 짐승만도 못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게 합니다.

왕위의 위협 존재인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제사장들 눈 감쪽 않고 85명이나 죽일 수 있었고... 함에 아부하여 살아남기 위해 파렴치하게 고자질하는 그일라 사람들도 생기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치러 가다가 다윗이 엔게디에 있음을 누가 알리니 3천명의 군사를 끌고 와 다윗을 치러올 정도로 다윗을 철천지원수로 삼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체험하고 왕의 자리까지 가는 은혜의 기회를 입었건만, 자신의 복을 화로 바꾸는데 천재적 소질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뉘워지 못한,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빗겨간 비극의 인물입니다.

과연 다윗이 사울의 적이었나? 다윗은 사위도 되고 애국 공신입니다. 확실히 왕의 자리를 굳히는 방법은 백성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위하는 다윗을 대적하고 자신의 시기심만 따르다가 결국엔 다윗으로 하여금 위기에 몰리게 하는 모습을 크게 드러나도록 높여준 셈이 되고 사울이 그토록 사무치게 목말라하는 파우로 변하니 사울이 미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공의, 거룩, 사랑으로 멋지게 이루어져 다스리시는 세상 경영이십니다. 그 기막힌 지혜를 감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적을 곧 자신의 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 곳은 목숨을 결코 지킵니다. 자격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에게 좋은 일이 되니 사울은 정말 황장합니다. 좌절될수록 집요하게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니 도무지 멈추지 못하는 권력 중독도 이쯤이면 정말로 끔찍합니다. 사울이 만약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스스로 생각하듯 아버지 심부름이나 잘하고 적게 사는 것에 족할 위인이건만 담을만한 인격의 그릇이 적어 복이 화가 되었습니다.

어디 사울뿐인가요. 우리 모두 내면에 내재하는 사울이 있기에 마음이 골골 씩씩합니다. 앞장 선 리더십이 사울같이 파우 중독이면 그 밑에 있는 이들의 삶이 고달프고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초심을 잃고 사울과 같이 내 사역으로 변경해 성도들을 자신의 존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함에 무감각합니다. 주님께서 몸 된 교회에 진정 공의와 거룩함으로 왕으로 모시는 주님 마음에 합한 사명자 다윗을 많이 일으켜 주시길 눈물로 기도합니다.

heenlee55@hanmail.net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p><b>갈보리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206)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몽고메리교회</b></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종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금요찬양: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b>벤엘교회</b></p> <p>담임목사: 백신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p><b>보스턴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중고등학생: 오전 10시, (한): 오전 11시 영아, 유아, 어린이: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00</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b>샬럿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시애틀평강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oseattle.org</p>	<p><b>안다옥교회</b></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8, Fax: (702)778-8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nychurch.org</p>	<p><b>알칸사 제자들교회</b></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rcs.org</p>	<p><b>앵커리지베를린교회</b></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www.bethelchurch.org/</p>	<p><b>엘파소열린문교회</b></p>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 (915)755-1490, 사해: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b>영성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백운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5)42-0288, Fax: (21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킬린우누리교회</b></p> <p>담임목사: 김성현</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l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주예수교회</b></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15분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scotacoma.org</p>	<p><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7:45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cu.org</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위기와 그리스도의 보혈



여승훈 목사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미국 프로야구 아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탑의 투수로 전설적인 기록을 남긴 랜디 존슨이라는 선수가 있었다. 그는 왼손잡이였는데 빠른 공이 그의 주무기로 수많은 타자들을 삼진으로 잡았다. 특히 베이스에 주자가 나가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다음 타자들을 삼진으로 아웃시키므로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장면은 가히 경이적이라 할 수 있었다.

모든 인생들은 크고 작은 위기의 상황과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서 허둥지둥 방황하다가 침몰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한다. 다윗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이방나라의 침략으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20편 말씀에 나타나 있다.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측정하는데 아주 좋은 시금석이 된다. 믿음이 총명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사람을 찾아가는 등 기도 외에 방법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강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데는 타이밍이 있다. 물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는 구조대원들은 가만히 기다린다.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이 빠져가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그 타이밍에 구조를 한

다. 동일한 원리가 위기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위기 앞에서 이런 저런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일을 더욱 꼬이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의 방식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다리신다.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이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자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위기 앞에서 제일 우선 되는 일은 나는 이 위기를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일종의 항복(surrender)을 선언하는 것이다.

기도의 출발은 내가 강한 의지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어서는 결코 안된다. 기도의 출발은 나의

의지와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 하므로 기도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가 있다.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제사의 핵심은 제사 자체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는데 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하여 다윗왕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위기 앞에서 지도자들이 초점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국가의 지도자이든 커뮤니티의 지도자이든 영적인 지도자이든 모든 지도자들의 리더십의 첫 번째 항목은 지도자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이론과 경험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

여도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보면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과 해외의 모든 한인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기도제목은 나라의 지도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일이다. 150만개 이상의 촛불이 청와대를 향하여 흔들려졌다. 그런데 진정으로 필요한 촛불 하나가 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촛불이고 나라의 지도자에게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해주 수 있는 촛불이다.

기독교 지도자분들께서 청와대를 다녀온 기사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다. 나라의 지도자와 나눈 주요 대화 내용도 읽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기독교 주변 이야기만 나누시다가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독교 주변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자체를 담대하게 나누어주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기회를 특별하게 주셨는데 그 기회를 날려 버리는 것 같아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정치인은 정치 이야기를 하고 경제인은 경제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

리더십이 왜 무너졌는가를 생각해 보라. 물론 정치력이 미약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통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즉 죄 문제를 다루어주면 하나님과의 불통의 관계가 소통의 관계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회복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인간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가운데서 외침 말고 전할 말과 나눌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진실로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반복하여 외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라는 말보다 더 뛰어난 조언이 어디 있겠는가?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 창립감사예배를 갖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 창립감사예배 8교회, 675성도, 40여 교역자로 구성

예수교미주성결교회(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 창립감사예배가 지난 11월 13일 오후 6시 남가주벨엘교회(담임 오병익 목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지방회 창립감사예배는 제 14차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2016. 10. 25, 뉴욕총회)의 승인을 받아 그동안 미국 서부지역에 한 곳을 더 신실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미국서남지방회 창립감사예배는 오병익 목사(남가주벨엘교

회) 사회로 문장혁 장로(남가주새언약교회)의 성경봉독, 김제임스 목사(워싱턴포도원교회)의 기도가 있었으며 김영일 목사(삼김과나눔교회)의 설교와 신익현 목사(주심성결교회)의 봉헌기도, 강양규 목사(남가주새언약교회)의 축사,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의 축도로 진행됐다.

김영일 목사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 일하는 서남지방회”(전3:1-11)란 제목으로 “뒤편지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지금인 것 같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미국서남지방회를 창립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이제 우리 지방회는 4대 핵심사역을 중심으로 전력하자”라고 전했다.

이날 창립감사예배에서 나온 모든 헌금은 멕시코 선교사인 서경열 목사와 김용인 목사에게 전액 선교비로 전달됐다.

이날 선출된 지방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방회장 김영일 목사(삼김과나눔교회) △부회장 오병익 목사(목사부회장, 남가주벨엘교회), 문장혁 장로(장로부회장, 남가주새언약교회) △서기 이용남 목사(은혜세계선교회) △부서기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회계 신익현 목사(주심성결교회) △부회계 강양규 목사(남가주새언약교회) △감사 김제임스 목사(워싱턴포도원교회).

미국서남지방회에 소속된 교회는 총 8개 교회와 675명 성도, 그리고 40여명의 교역자들로 구성됐다.

또한 앞으로의 4대 핵심사역으로 △교회개혁 △선교 △연합사역 △신학교를 통한 목회자 발굴에 집중하기로 했다.

▲문의: (213)284-6520 이용남 목사 (기사제공: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후원자의 밤 참석자들이 그 자리에서 손으로 하트를 그렸다.

아동후원자는 ‘축복의 통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6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주최한 2016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이 지난 27일 저녁 6시 뉴욕능기교회(담임 김홍석 목사)에서 개최됐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1년간 동 기구를 통해 아동결연을 해온 후원자들을 초청하는 자리에서 회장 전희수 목사는 감사를 표하며 “여러분들이 한 아이의 인생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셨다”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투명성과 순수성을 바탕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어린 생

명들에게 떡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구”라고 말하고 지난 사역들을 소개했다.

또 2017년 새 사역지인 과테말라(장경순 선교사)의 부부막과 화장실 설치를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시간도 가졌다.

예배는 유상열 목사 인도로 기도양승호 목사, 특송 밀알선교중앙단, 설교 방지각 목사, 축도 박이스라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이것을 기억하라”(눅16:19-2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 각 중에 후회가 가장 불행한 것”이

라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첫째, 부자로 죽고 거지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둘째, 부자로 거지도 마지막엔 하나님 앞에 선다 셋째, 최후의 심판 날에 평가되는 잣대는 공흙”이라고 말했다.

방 목사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랑과 공흙은 베풀 때 배풀어야 하며 우리 모두 이 귀한 일에 동참하자”고 강조했다.

권금주 목사 사회로 사역소개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희수 목사의 회장인사에 이어 사역보고가 있었으며, 황동익 목사 와 이종명 목사가 축사한 후 2016년 여름 단기선교 방문지인 콜롬비아 사역영상을 상영하고 박진하 목사가 후원안내를 했다.

이어 월드밀알선교중앙단의 특별찬양 후 김수경 목사 광고, 김홍석 목사 폐회기도, 김인한 장로 만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다양한 구호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기아대책과 달리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해외아동결연을 주 사역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30여 교회와 개인이 콜롬비아, 페루, 타지키스탄,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중국, 북한 등 7개국 190여 명의 아동들과 결연을 맺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만찬과 아울러 기념 머그잔과 볼펜, ‘오병이어’(8호)를 배부했다.

(유원정 기자)



LA군사랑선교회 11월 보국특별기도회를 가진후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LA군사랑선교회 11월 보국특별기도회

LA군사랑선교회(회장 김회창 목사)는 조국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위기를 맞아 지난 26일 오전 11시 월드미션대학교 6층 강당에서

11월 모임을 보국특별기도회로 가졌다.

먼저 보국특별예배에서 유니온성결교회 이정근 원로목사는 “떡이

라 마셔라”(요6:52)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꾸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위기의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처럼 살 것을 강조하며 조국 군인들의 피와 땀을 드러 국토방위에 여념 없는 모습을 축복했다.

이어 중보기도회를 인도한 회장 김회창 목사는 조국의 큰 위기와 국군장병들의 추운겨울 근무와 미국의 지도력 교체에 위한 기도를 드렸다.

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며 애국심을 북돋은 후 오찬을 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LA군사랑선교회)

내년 2월 봄노회를 학술대회로 명칭변경 CRC 코암노회 운영위원회 개최

CRC 코암노회(서기 임지석 목사) 운영위원회 모임이 11월 29일 오전 10시 나성세계로교회(담임 임지석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스내년 2월 27-28일에 열리는 봄노회(팜스프링스 에머럴드 호텔 예정)를 학술대회 및 사모 초청 친목 모임으로 진행 △노회에 불참하는 노회원 출석 관리 및 상회비 납부 독려 △교단 총회에 참석할 노회 대표 선임

△회원에 대한 사항 △조직교회/미조직교회 청원 독려 등을 논의했다.

특별히 이날 모임에서 회원교회 중 조직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상황이 해마다 변경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조직(미조직) 교회를 선택해 청원하면 개교회 결정에 따라 조직교회

여부를 명시할 것임을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모임에선 노회 명칭을 CRC 코암노회로 하며 은행구좌 역시 CRC KOAM Classes로 등록했으며 주정부에 노회를 등록함으로써 비영리단체로 승인됐음을 알렸다.

이날 모임은 노회산하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 가정, 그리고 파키스탄 선교집회를 진행 중인 임택선교사와 해외 형제를 위한 합심기도를 한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CRC코암노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나성세계로교회에서 열렸다

“헌신의 회복을 감사하라”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뱅킷 및 오픈하우스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뱅킷 및 오픈하우스가 22일 오후 7시 본교 채플실에서 열렸다.

허동현 목사(학생처장)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윤태중 교수가 트럼펫을 연주했으며 최규남 총장이 “헌신의 회복을 감사”(딤후 4:1-8)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최 총장은 “사도바울은 성경인물 중 예수님 다음으로 헌신을 많이 한 자”라 소개하며, “바울은 예수님을 30살에 만나 60살에 순교했다.

30년 동안 수많은 크리스천 만들고 교회를 개척했고 로마감옥에 갇혔다.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 디모데는 에베소교회 담임이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디모데에게 목회를 넘겨줬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분명한 사명인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자다. 내게 있는 사명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부 만찬의 시간을 가진 후 퀴즈

와 추첨 등 친교시간 가졌으며 김현안 박사가 학교소개, 구자혁 교수가 학자금 융자 안내, 그리고 학생간증의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주최 뱅킷 및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최규남 총장이 말씀 전하고 있다



동부교계 기사판



미국장로교인교회전국총회 제 46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제 46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가 2017년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그랜드엠 베서더 호텔에서 개최된다.

제 6회 사랑나눔 콘서트 뉴욕 BLISS 색소폰 앙상블이 연주하는 KCS회관 건립을 위한 제 6회 사랑나눔 콘서트가 12월 11일(주) 오후 6시 다니엘가터베어드 중 고등학교(144-80, Barclay Ave, Flushing)에서 열린다.

KCBN 27주년 감사의 밤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 윤세웅 목사) 27주년 감사의 밤이 12월 5일(월) 저녁 7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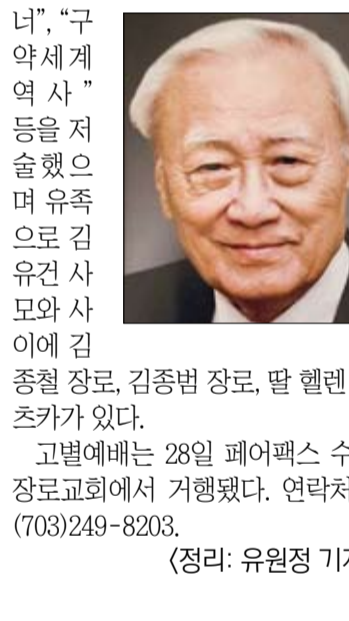
뉴저지 한소망교회 이동원 목사 초청 영적 부흥성회 뉴저지 한소망교회(담임 목사)가 "힐링 & 블레싱"이라는 주제로 이동원 목사 초청 영적 부흥성회를 갖는다.

싱글맘, 홀리스, 극빈가정 돕기 일일잔치 오른슨구제센터(대표 안승백 목사)가 주최하는 싱글맘, 홀리스, 극빈가정 돕기 일일잔치가 12월 17일(토) 오전 11시-오후 3시 오른슨 구제센터(35-24 Union St. #B, Flushing)에서 열린다.

뉴욕안디옥교회 한필상 담임목사 취임예배 뉴욕안디옥교회 3대 담임 한필상 목사 취임예배가 12월 11일(주) 오후 5시 동 교회(35-70 160st, Flushing)에서 열린다.

김윤국 목사 별세

워싱턴DC 지역에 거주했던 김윤국 목사(사진)가 29일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94세. 김윤국牧사는 1948년 평양에서 신학공부를 마치고 월남,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미 제5공군사령부에서 통역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통역장교로 복무했다. 1952년 도미, 프린스턴신학대학원과 웨스턴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했다가 63년 다시 도미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시카고 등지에서 목회와 교수직을 감당했다.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서술영락교회를 담임했다가 은퇴하고 1994년 미국으로 돌아왔다. 저서로는 자서전 "산 넘고 물 건너", "구약세계역사" 등을 저술했으며 유족으로 김유족으로 김유자 모와 사이에 김종철 장로, 김종범 장로, 딸 헬렌 피츠카가 있다. 고별예배는 28일 페어팩스 수도장교회에서 거행됐다. 연락처는 (703)249-8203. (정리: 유원정 기자)



새 회장에 김상태 목사, 부회장에 문석호 목사 뉴욕목사회 45회기 정기총회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 제 45회기 정기총회가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뉴욕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김상태 목사, 부회장에 문석호 목사가 선출됐다. 이례적으로 회장에 현 부회장인 김상태 목사(뉴욕주님의교회)와 박태규 목사(뉴욕새침장로교회) 등 2명이 입후보한 이번 선거는 총 96명 출석자 중 김상태 목사가 56표, 박태규 목사가 39표를 얻어 과반수를 넘는 김상태 목사가 새 회장으로 당선됐다. 부회장으로는 단일후보인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가 박수로 추대됐다. 또 감사 3인은 김재호 목사(시온산장로교회), 김연규 목사(뉴욕비전교회), 하정민 목사(햇불선교회)가 선출됐다.



뉴욕목사회 신구임원 교체식. 왼쪽부터 김연규 감사, 하정민 감사, 문석호 부회장, 김상태 회장, 김영환 직전회장, 허윤준 목사, 장현숙 목사, 안경순 목사, 최현준 목사.



뉴욕나눔의집 새 이사장에 문석호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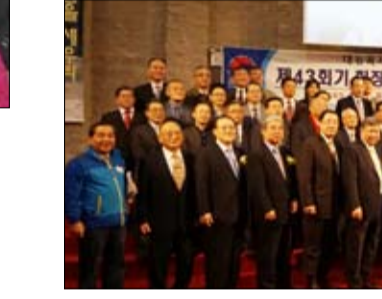
뉴욕나눔의집 새 이사장에 문석호 목사

미동부 한인노숙인 비영리전문기관인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 이사회가 11월 22일 오전 11시 플러싱 뉴욕나눔의집에서 개최된 신임 이사장에 문석호 목사, 부이사장에 양민석 목사를 추대했다. 1부 예배는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잇넷교회 담임) 인도로 기도 임병남 목사(이사, 뉴욕평화교회 담임), 설교 장석진 목사(부이사장, 뉴욕성결교회 원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눅17:2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석진 목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뉴욕나눔의 집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한 이사들에게 감사한다"며 "김지하 시인은 '밥이 생명', 예수님께서 '네 이웃이 네 몸'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현재성을 갖고 있다. 이웃과의 나눔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신앙은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결, 이웃과의 수평적인 연결, 그것이 신앙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연결해 그들을 돕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룩하자"고 전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1부 예배는 김상태 목사 인도로 기도 현영갑 목사, 성경봉독 안경순 목사, 설교 방지각 목사, 축도 장석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12:14-2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라며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64%

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다.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미운사람을 향해 장점을 보고, 도와주고, 칭찬하라는 말이 있다. 크리나 사람은 함께 가야 한다. 크리스천 같은 사람이 아닌 크리스천이 되자"고 말했다. 2부 회무는 김영환 목사 사회로 김승희 목사의 개회기도에 이어 회장인사, 회원점명, 개회선언, 최현준 목사, 전회의록 낭독으로 이어졌다. 임무보고는 사업보고(허윤준 총무), 행정보고(장현숙 서기), 재무보고(최현준 회계), 감사보고(임재홍

감사), 선관위 보고(임병남 선관위원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정은 총수입 41,600.17달러(전회기 이월 5,712.77달러 포함), 지출 37,764.32달러, 잔액 3,835.85달러로 보고됐다. 이어진 임원선출에서는 임병남 목사가 입후보자를 소개하고 각 후보들이 출마소견을 발표했으며 무기명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고 부회장과 감사후보 6명을 추천 받아 다수자 3명을 감사로 선출했다. 이날 감사패는 김재홍 목사(체육분과), 이창남 목사(다민족분과), 최현준 목사(회계), 안경순 목사(부회계)에게 수여됐다. 신임회원으로 김수경 목사(뉴욕퀸즈교회), 이창중 목사(뉴욕동서교회), 정인수 목사(뉴욕좋은교회)가 가입됐다. "기도하며 섬기는 목사회가 되자"를 표어를 걸고 출범했던 44회기는 신년기도회부터 알라미 주정사 기도후원회, 특별연합기도회, 베어마운틴 산상기도회와 임실행위원회를 통해 기도의 릴레이를 해왔다. 또 성탄축하예배와 미동부지역 5개주 연합체육대회, 성극(삼손) 관람, 장학생 선발, 추계체육대회 등을 개최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제 43회기 이취임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제 43회기 출범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제 43회기 출범했다. 회장 및 임실행위원, 31대 이사장 이취임예배가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으로 취임한 김홍석 목사는 "중고개혁 500주년을 맞는 2017년에 회기를 맡은 것은 개혁을 요청하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름다운 역사는 계승 발전한다. 시대에 맞는 양은 부분은 고쳐나가며 복음으로 돌아가는 한 회기를 이뤄가겠다. 첫째, 소그룹으로 모두가 참여하며 둘째, 용서와 화합, 용납하는 교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취임인사를 했다. 직전회장 이종명 목사는 이임사에서 "42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과 임실행위원들에게 감사한다"며 "내년 중고개혁 500주년을 맞아 43회기가 역사의 획을 긋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이만호 목사 인도로 기도 김중훈 목사, 성경봉독 김주열 장로, 특송 케리그마중창단, 말씀 이용걸 목사, 헌금기도 순서로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는 "뉴욕의 등불"(삼하21:15-2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다윗의 생명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던 것처럼 오늘 취임하는 김홍석 회장과 임실행위원들이 뉴욕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며 "첫째, 다윗의 등불은 하나님이 주셨다. 다윗이 스스로 등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역하면 세상의 등불이 돼야 한다. 둘째, 법사에 빛을 발해야 한다. 전쟁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다윗처럼 지도자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 (14면으로 계속)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etc.





추수감사절 맞이 제2회 함께가요 행사가 생명찬교회에서 열렸다

### 생명찬교회 감사절맞이 제2회 "함께가요" 행사

#### 남가주밀알선교단, 나눔선교회, 종려교회 초청

생명찬교회(담임 김동일 목사)가 주최한 추수감사절 맞이 제 2회 "함께가요" 행사가 22일 오후 6시에 개최됐다.

김동일牧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장애우를 섬기는 남가주 밀알선교단의 식구들과 마약중독과 싸우는 나눔선교회, 그리고 종려교회분들 50여분을 초청했다"며, "한때 약물중독에 빠졌지만 벗어나려고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는 청년들을 안아주며 장애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싶어 작년 이어 올 해도 마련하게 됐다. 이번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

들께 고마움을 표시한다. 즐거운 시간을 함께해준 밀알, 나눔, 종려교회 식구들과 행사를 갖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종희 목사(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나눔선교회 찬양팀이 찬양인도했으며 강에스터 목사(남가주밀알선교단)이 기도, 원순일 집사(생명찬교회)가 특송을 했다.

이어 김동일 목사가 '탕자의 비유'(눅15:11-24)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시인 윤일흠 목사 시집 '거기 빛이 있기에' 출판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윤일흠 목사 출판감사예배

#### '거기 빛이 있기에' ...문화선교원 시전 주관

시인 윤일흠 목사 시집 '거기 빛이 있기에' 출판감사예배가 11월 27일 오후 4시 로스앤젤레스교회(담임 신병욱 목사)에서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인미 전도사) 주관으로 열렸다.

윤일흠 목사는 "이 시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기를 바라고 그들이 빛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나누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이시들의 어느 한 구절에 걸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집을 냈다"고 말했다.

정문기 시인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백승배 목사가 기도, 정용치 목

사가 '제3의 눈'(출3: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영현 감독이 축사했고 권진태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2부 출판감사와 시낭송 시간은 김영숙 시인, 이애미 동인, 윤미라 동인, 이은경 동인, 현대식 시인, 최명희 동인, 신병욱 목사, 정문기 시인, 이인미 시인이 윤일흠 목사의 시집에 실린 시들을 낭송했다.

이어서 최명희 동인이 특송을 했으며 백승철 시인이 서평, 이인미 시인이 축사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하늘시인 동인들이 중창했으며 오정택 목사가 '비전 50'을 소개했다.

(박준호 기자)

### 갈고닦은 실력 마음껏 뽐내

#### 제14회 셋별선교합창 및 율동 예술제

셋별선교회(회장 이봉조 선교사)가 주최한 제 14회 셋별선교합창 및 셋별찬양율동 예술제가 11월 27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임정연 아나운서(미주기독교방송) 사회로 열린 예술제는 셋별선교합창단(지휘 오위영 목사 반주 김주영 집사), 셋별글로벌찬양율동단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었다.

또한 테너 오위영 목사, 메조소프라노 주광옥 교수(미주감신대학교)가 감동스러운 무대를 펼쳤으며

이예진 양(엘블리 고등학교)이 피아노 연주, 유희자 고전 무용팀과 조애숙(가야금), 김정자(장고) 연주가 있었다.

한편 이흥기 장로(셋별선교회)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김인용 목사(LA연합감리교회)가 기도했으며 조현영 목사(참빛감리교회)가 '찬양할 수 있는 은혜'(시146:1-10)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윌리엄스 발행인)의 축사와 이창민 목사(LA연합감리교회 담임)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14회 셋별선교합창 및 찬양율동 예술제에서 셋별선교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제154차 소망교육세미나에서 유분자 이사장이 소망케어교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12월 6일엔 '윤복희 갈라콘서트' 개최

#### 소망소사이어티 제154차 소망교육세미나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에서는 지난 11월 18일 오후 1시부터 열바인온누리교회(담임 권혁빈 목사)에서 제 154차 소망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

열바인온누리교회 샬롬아카데미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세미나는 주혜미 사역국장의 치매 예방을 위한 웃음치료 강의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갑자기 당하는 사고의 경우에 당황하게 되는 상황 △가족들의 갈등과 반응에 대한 상황극을 최경철 사무총장이 참가자들과 함께 실연해보였다.

유분자 이사장은 "아름다운 마무리"란 주제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 살아있는 동안 준비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치매교실인 소망케어교실을 소개했다.

한편 소망소사이어티는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해의 다짐을 계획하는 시간으로 매년 준비하는 소망의 날 행사를 올해는 '윤복희 갈라콘서트'로 진행한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소망의 사역을 돕기 위한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콘서트는 12월 6일(화) 오후 5시 Ehlers Community Recreation Center, Heritage Hall(8150 S Knott Ave. Buena Park)에서 열리며, 저녁식사가 준비된다. 비용은 골드석은 100달러, 실버석은 50달러다.

티켓구입은 사무실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512)977-4580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 서부교계 게시판

# west

#### LA사랑의교회 탄생 10주년 기념음악회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탄생 10주년 기념음악회 오라토리오 '루디아'가 12월 3일(토) 오후 7시 버질중학교(1가와 벨몬트 코너)에서 열린다.

▲문의: (213)386-2233

#### LA 동부지역 성탄 연합찬양제

LA 동부지역 성탄 연합찬양제가 12월 4일(주) 오후 4시30분 할렐루야한인교회(담임 송재호 목사)에서 LA동부교협(회장 송재호 목사) 주최로 개최된다.

▲문의: (909)595-3110

#### 새누리교회 목사안수예배

새누리교회(담임 손경일 목사 1250 W. Middlefield Rd, Mountain View)는 신진호, 한재식 전도사의 목사안수예배를 12월 4일(주) 오후 4시30분에 갖는다.

▲문의: (650)210-0000

#### 나성삼일교회 자폐아동캠프

나성삼일교회는 자폐아동캠프를 12월 17일(토)부터 21일(수)까지 라이온스캠프테라시타파인스(22801 Big Pines HWY)에서 개최한다. 대상은 초중고 자폐아동(가족들 참여가능)이다.

▲문의: (310)999-5584

#### 엘로힘 찬양단 음악예배

엘로힘찬양단(단장 류수영, 지휘 데이빗오) 음악예배가 '교회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라는 주제로 12월 4일(주) 오후 6시 남가주안디옥교회(담임 추영욱 목사 1565 W. Katella Ave, Anaheim)에서 갖는다.

▲문의: (213)500-1468

연말이면 등장하는 구세군에는 훈훈한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다.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일 년 동안 정성껏 모은 저금통을 가져와 모금함에 넣기도 하며 일용직 근

로 기부한 백 불짜리 10장이 나온 것이다.

천 달러라는 성금은 액수를 떠나서 같은 분이 매년 기부를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며 무명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해준 그 사랑이 참으로 감사하다. 어떠한



### 무명의 천사, 올해도 자선냄비 1000달러 기부

로자로 받은 일당 전부를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며 모금함에 넣기도 하는데,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훈훈한 뉴스거리가 등장했다.

작년 추수감사절 다음날 무명으로 기부된 흰 봉투에 넣어진 백 불짜리 새돈 10장이 마켓에서 나왔다. 어느 분이 기부한 것인지 몰라 구세군 측은 그냥 지나갔는데 올해 다른 장소에서 역시 무명의

행편에서 기부했는지는 모르지만, 구세군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이웃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구세군은 12월 20일 성탄 장난감과 음식패포를 나눈다.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구세군 나성교회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213)480-0174  
(기사제공: 구세군나성교회자선냄비)

##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신비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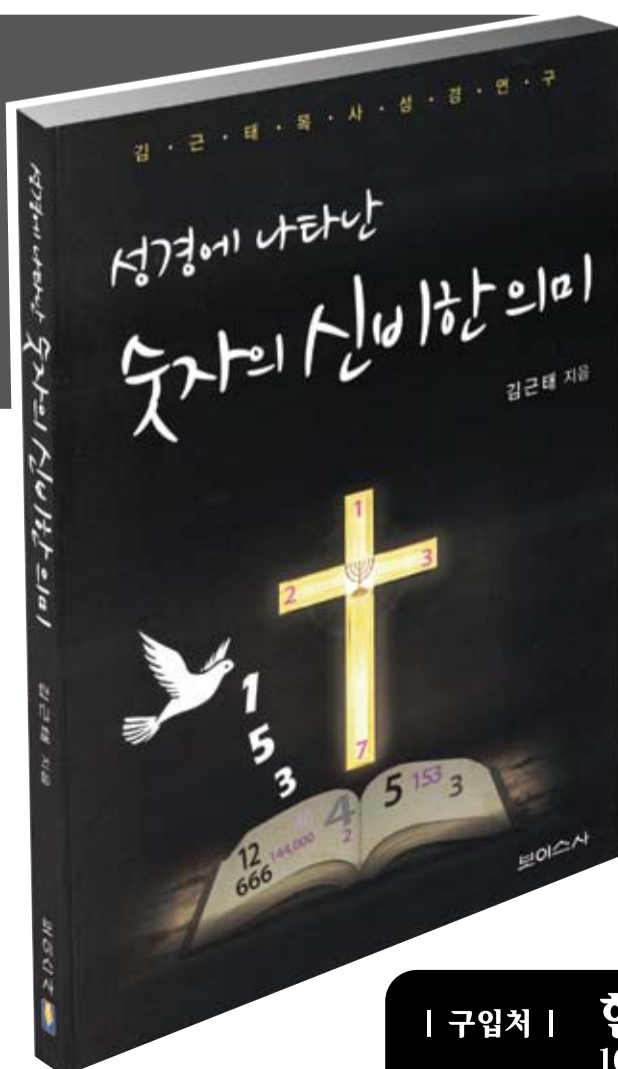
-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나? 대략 40년이다
- 그리스도의 탄생의 14-14-14대는 역사적 사실인가?
- 민수기 3장에서 레위 지파의 인구 합계 계산에 300명이 왜 틀린가?
- 동방박사들은 다니엘의 제자 후손들이었다.
- 노아의 아들, 셋이 야벳의 형이다? NO
-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며, 있는 것과 없는 것은?



### 김근태 지음

(그린빌 세소망 장로교회 담임)

2006년, 애틀란타 교회협의회 회장  
1997년, 2014년, 애틀란타 목사회 회장  
2008 ~ 10년, 애틀란타 성경대학 학장



### | 추천사 |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신비한 의미는 목사님께서 묵회하는 중에 성도들의 솔한 질문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간추려 만드신 놀라운 역작입니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성서적인 신비와 그 숫자에 내재된 의미를 풀어 해친 귀한 지혜입니다.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고 정인수 목사

성경 속의 숫자는 신화가 아닌 창조주의 흔적이기에 하나님의 말 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파악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건전한 신학적 바탕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지혜를 얻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오론목자교회 담임목사 박천일

이 책은 칼빌주의적 성경 연구로 평생에 해보지 못한 설교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김현태 목사 Ph.D

## \$15 + 송료

| 구입처 | 한국서적 Hankook books & promotion, inc  
161-21 29 Ave. Flushing, NY 11358  
TEL. (718)762-1200



# 교인 3명 중 1명 “출석교회 떠나고 싶다”

## 21세기교회연구소 등 500명에 설문조사 발표

크리스천 3명 중 1명이 현재 출석 중인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연령층 가운데 30대 신자들의 주일예배 참석률이 가장 낮고, 교회 충성도도 바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와 담임목사에 대한 만족도도 100점 만점에 겨우 66점을 넘었다.

실천신학대 21세기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신도 교회 선택과 교회생활 만족도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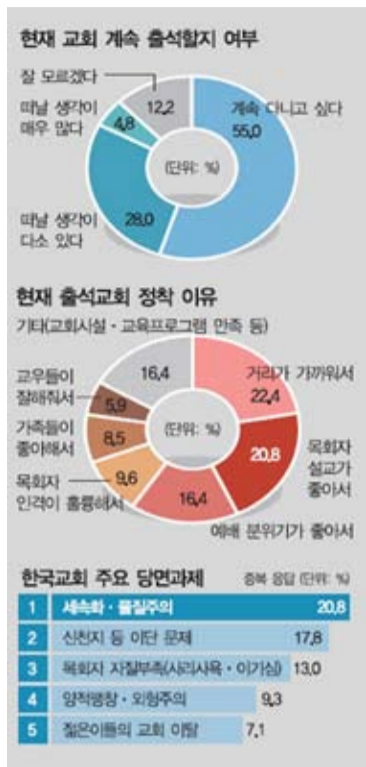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지엔컬리서치가 만 20세 이상 개신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다.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 계속 다니고 싶은가’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55.0%인 반면, ‘떠날 생각이 있다’는 대답이 32.8%로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을 넘었다. 교회를 떠나려는 이유는 ‘교육·훈련 부족’(11.5%) ‘예배의 문제’(11.1%) ‘지나친 전도 강요’(10.9%) 등이었다.

교회를 떠난 뒤 ‘다른 교회에 출석하겠다’한 응답자가 61.3%였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로 남겠다는 응답도 22.1%나 됐다. 이 같은 비율은 전체 성도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7% 정도로, 개신교인 100명 중 7명이 ‘잠재적’ 가나안 성도인 셈이다.

정재영(실천신학대 종교사회학) 교수는 “현재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나안 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남성·20대·블루칼라, 51~100명 규모의 교회, 장로·권사·안수집사 사이에서 가나안 성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출석교회 및 담임목사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각각 66.4점, 66.2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교회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예배 분위기’(26.9%)였고, ‘지역사회와의 관계’(18.8%) ‘담임 목사’(16.0%) ‘성도간 교제’(15.7%) 등이 뒤를 이었다. 담임목사 만족도는 ‘설교 내용’(44.4%) ‘인격’(24.3%) ‘교회행정’(17.5%) 등의 순이었다.

정 교수는 “출석교회·담임목사 만족도는 2012년 실시한 ‘한국기독교



교회자협의회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2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며 “성도들이 목회자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20·30세대와 ‘블루칼라’ 성도에

대한 교회의 관심·양육·돌봄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로는 20대,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성도들의 교회 만족도(100점 만점 환산)는 각각 62.6점, 61.5점으로 최저 수준이었다.

30대의 경우는 한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비율(65%)과 매주 일 예배 참석률(56%), ‘1주일간 교회 방문 빈도’로 계산한 교회 충성도(14회) 등이 전 연령층 대비 최저치였다. 교회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60%나 돼,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직장생활과 결혼, 육아가 몰입하면서 교회에 소홀해지는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조사결과다.

이밖에 교인 10명 중 7명 정도(73.3%)만이 정기적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교회에 정착하게 된 이유로는 ‘거리가 가까워서’(22.4%)가 가장 많았다. 이어 ‘목회자의 설교가 좋아서’(20.8%)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16.4%) 등의 순이었다. 한국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는 ‘세속화·물질주의’(20.8%) ‘신성지 등 이단 문제’(17.8%) ‘목회자 자질 부족’(13.0%) 등으로 중복 응답했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서 ±4.4%포인트였으며, 개신교인의 지역·성·연령분포 비례에 따라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했다.

# 출석교인 51~100명 ‘과도기적 교회’ 가 살길은?

## ‘평신도 교회 선택 조사’ 결과 대안 모색

21세기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가 지난 25일 발표한 ‘평신도 교회 선택과 교회생활 만족도’ 연구 조사에서는 출석교인 51~100명인 교회의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회의 70~80%가 중소형 교회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



기울인다”고 했다. 송용원(서울 은혜와선물교회) 목사는 서울 한복판에서 80명 정도의 성도와 함께 3년째 개척교회 목회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작은 교회 목회자일수록 일거수 일투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목회자의 건강과 더불어 건강하고 친밀한 성도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작은 교회의 ‘새로운 시도’들 국내·외에서 3차례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는 송 목사는 개별 교회 건물이 없다. 주일에만 예배장소를 빌려 사용하는 그는 늘 새로운 시도를 한다. 송 목사는 몇 년 전 전문직을 지닌 교인 몇 명을 주축으로 ‘벤처창업학교’를 열었다. 16주 교육과정을 마련했는데, 70명 넘게 몰렸다. 탈북대학생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더니 40여명이 넘게 왔다.

송 목사는 “작은 교회라 해서 지역 사회에만 기댈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교회의 체질과 (교인들의) 은사에 따라 여러 분야의 ‘영역사회’를 향한 섬김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의 A목사는 “한국교회 대다수가 바로 작은 교회”라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들 교회를 선택해 출석하는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응원, 격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새누리’에서 자꾸 풍기는 ‘신천지’ 냄새

## 이정현 의원실 ‘신천지 신도’ 근무로 연관 의혹 다시 부각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가 새누리당 대표인 이정현 의원의 비서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누리당과 신천지의 관계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의혹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신천지가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의 ‘영세교’와 연결되어 최순실을 통해 새누리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신천지와 새누리당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07년이다. 신천지는 당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 대통령후보 경선 때 ‘신천지 대의 활동 협조 안 내 공문’을 신도들에게 내려보내 한나라당 당원 등록과 동원을 지시했다. 신천지는 당시 공문에서 ‘오 늘날 신천지는 대외적으로 이방 바벨론의 교단에 필박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복음 전파와 전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특별 당원으로 한시적으로 가입하여 (이방 사람들의 필박을 이기기 위해)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6년 한나라당 의원으로 있을 때 황장민민주주권실위원회가 개최한 행사 때 신천지 교수 이만희(85)씨와 한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2012년 2월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하면서 신천지와 새누리당의 연루의혹이 다시 불거져 나왔다. ‘새·신(新)’ ‘누리=천지(天地)’를 뜻하는 만큼 새누리는 곧 신천지를 의미한다는 주장이었다. 새누리라는 당명은 박근혜 의원 중심의 당지도부가 만들었다. 당명 변경 과정에서 반대도 많았다. 유승민 의원은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며 반대했고, 다른 의원들도 “특정 교회 이름과 비슷해 종교적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지만 당명 변경은 추진됐다. 새누리당은 당시 “국민공모와 당 내외 홍보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 것”

이라며 신천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신천지 연루 의혹은 그해 대선 때 뜨거운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의 이경재 기독교대책본부장이 2004년 ‘신천지 21주년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하한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졌기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축사는 의례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0년 한나라당 비상근 부대변인까지 맡았던 차한선씨를 둘러싸고 또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월간 ‘현대중교’에 따르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청년위원회 직능담당과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했던 차씨는 수강생을 모집해 신천지 교리를 가르쳤던 신천지의 ‘하늘사다리 문화선전’ 대표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같은 의혹이 다시 점화되자 신천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천지’가 성경 상의 ‘새 하늘 새 땅’이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새누리당의 당명과 연계하고 있다”면서 “최태민의 영세교를 신천지 교수 이만희(85)씨와 한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당명 변경 과정에서 반대도 많았다. 유승민 의원은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며 반대했고, 다른 의원들도 “특정 교회 이름과 비슷해 종교적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지만 당명 변경은 추진됐다. 새누리당은 당시 “국민공모와 당 내외 홍보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 것”

# “혼란한 한국, 안정을 간구합니다”

## 국가기도연합 ‘미스바기도회’ 5000여명 참가

국가기도연합은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제5차 미스바구국연합기도회를 개최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혼란을 거듭하는 한국사회의 안정을 위해 간구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지

에서 모인 5000여명의 기도자들은 “정죄·중요의 돌을 버리고 화해와 용서의 십자가를 들자”며 예수 보혈을 의지해 간절히 부르짖었다. 순재화(오픈핸드미션 대표) 목사는 “우리가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계신 기도하며 세운 조국 대한민국을 고쳐주시 것”이라며 “주 예수의 평안이 시시 군중에, 광화문에, 여의도에, 청와대에, 대한민국에 있도록 간구하자”고 말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도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다. 조국 대한민국도 주께

서 영광 가운데 지키실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혼란할 때 파수꾼처럼 진리의 빛, 기도의 빛, 성령의 빛을 높이 비추자”고 말했다.

국가기도연합은 29일부터 한국사회의 안정을 위해 7개 금식기도에 들어간다. 다음 달 3·10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기도회를 이어간다.

# 개신교 전래·발전사 여전히 누락

## 국정 역사교과서, 기독교 부분 어떻게 서술했나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국정 역사 교과서에는 개신교의 전래와 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빠져 있었다. 이 부분은 교계가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던 사안 중 하나다. 다만 개신교가 근대화에 기여한 부분은 다소 늘어났다. 교과서에 종교계가 언급된 부분은 크게 ‘민족운동’과 ‘근대화 기여’ 두 부분이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3·1운동 이후 개신교가 펼친 민족 운동을 설명한 부분에서 “천주교와 개신교는 사회사업과 교육 활동을 활발히 펼쳤고, 특히 개신교는 일제 말 신사 참배 강요에 저항하여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117쪽)고 기술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도 ‘종교계의 민족운동’ 챕터에 “개신교는 교육 운동과 각종 문화 사업에 앞장섰고, 일제가 신사 참배를 강요하자 이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된 교회와 학교가 폐쇄되었고 주기철 등이 투옥되어 목숨을 잃었다”고 서술했다. 대종교 천도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에 대한 내용도 비슷한 비중으로 다뤘다. 특히 천도교의 경우 “‘개벽’ 어린이’ ‘신여성’ 등과 같은 대중잡지를 발행하여 대중의 사회적 각성을 꾀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며 자료사진까지 수록했다. 개신교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한 내용은 기존 교과서에 비해 다소 비

중 있게 실렸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조선에 불어온 근대화의 바람’ 챕터(79쪽)에서 서양 의료 기술이 도입되던 당시를 설명하며 알렌 선교사에 대해 한 줄 언급했다. 책은 “정부는 1885년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이후 제중원)을 설립하고 개신교 선교사 알렌에게 진료를 맡겼다”고 적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근대문물의 수용과 확산’(185쪽) 챕터에는 ‘교육·의료 분야에서의 선교사 활동’을 하나의 장(章)으로 따로 구분해서 다뤘다. 교과서는 “조선이 서양 국가와 조약을 맺으며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이들은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며 근대 문물 수용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알렌 선교사가 최초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을 세운 내용과 선교사들이 배재학당·송실학교 등 사

립학교를 세워 근대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한 내용이 상당히 늘었다”며 “한국 교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에 개신교의 전래와 발전 과정 부분이 빠진 것은 논란이 예상된다. 개신교보다 영향력과 교세가 적었는데도 발전 과정을 수록한 타 종교와 행정부 문제도 제기된다. 박 교수는 “천주교나 동학에 대한 조선 후기 종교 자체의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개신교에 대한 설명은 제외됐다”며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정필기준에 기독교가 근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빠져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 인권위법 개정안, 이번엔 軍인권보호관 논란

## 전문가 위원 선정·과견, 인권침해 방지 명분 추진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기업 내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수 있다’는 국민일보의 보도 이후 공식 철회된 가운데 또 다른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명이 지난 1일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인권보호관을 군대에 파견해 인권 실태를 조사하자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사관생도 등에게도 일반인처럼 동성 간 성행위

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을 적용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군대에선 군형법 92조의 6에 따라 동성 간 성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처벌금지 사유로 보는 국가인권위법과 불법 행위로 보는 군형법의 가치가 서로 충돌한다. 문제의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에 군대 내 인권교육 진행, 군대 인권상황·개선대책 보고서 발간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동성 간 성행위 옹호·조장 교육도 가능케 했다. 특히 군인권보호관을 통해 군부대를 방문 조사하고 이

를 거부·방해했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해 낯가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를 통제하는 간부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군법무관 출신인 지영준(범무법인 저스투스 대표) 변호사는 “백 의원 등이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권 인권 보호를 위해 법안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군대에서 엄격하게 금지되는 동성 간 성행위를 ‘인권’으로 포장해 군형법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 변호사는 “특히 진급 경쟁이 치열한 군 구조상 군인권보호위나 군인권보호관에 찍혀 불점을 받은 진급에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간부들이 내무반과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사병 간 성행위를 보고 제재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

다. 그는 “군인사법 제59조의 2 등의 법률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가 있는데도 굳이 군인권보호관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장도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성 간 성행위자나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했던 인사들이 군인권보호관 ‘완장’을 차고 군대에 들어가 부도덕한 성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에 알아보니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하다 적발된 경우 처벌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가 제출한 개정안과 군형법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성추행·특수절도 전력자, 목사 못된다

## 예정합동, 2017년도 강도사고시부터 증명서 의무화

내년부터 성추행 특수절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 소속 목사가 될 수 없다. 예정합동은 최근 실행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강도사고시부터 범죄경력증명서와 정신감정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양대 교단인 예정합동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타교단 목회자 선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강도사고시의 핵심은 행정 절차는 쉽게 했지만 조건은 더 까다롭게 했다는 점이다. 예정합동 고시부부장 김상신 목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강도사고시 응시자는 자기소개서, 정신감정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10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시 후에도 논문 작성, 성경본문 주해, 설교문 작성, 신학시험, 면접 등을 통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강도사고시 제출서류는 노회장 추천서와 졸업증명서 등 7가지였

다. 김상신 목사는 “각종 강력범죄는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 병력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증하자는 차원에서 범죄경력증명서와 정신감정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정신감정서는 각종 정신 병력을 걸러내는 기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경력증명서는 이미 취업과 이민 등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이라며 “최근 일부 목사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만큼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정합동의 2017년도 강도사고

시는 6월 27일 홍신대 양지캠퍼스에서 실시된다. 군목후보생 강도사고시는 내년 2월 16일 총회광판에서 진행된다. 군목후보생 논문은 ‘현재 군대 내 신앙교육을 진단하고 개혁주의 신앙교육 방안을 제시하라’로 정해졌다. 앞으로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며 홈페이지(gapck.org)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원서접수 비는 8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예정합동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 교도소 선교칼럼 (10)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 새 삶을 찾은 경찰관의 딸 샌드라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저는 가끔 기쁨에 가득차서 행복해 보이는 재소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샌드라가 그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요즘 걸음도 춤을 추는 것 같이 걷고 천사 같이 빛나는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기도 모임에 항상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환한 얼굴을 볼 때마다 신이 나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녀가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신앙 간증은 변화프로젝트 문서선교에서 곧 발행하게 될 '회개'라는 책에 출판될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샌드라를 통해 다시 한번 실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샌드라는 경찰관인 아버지와 직장생활을 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부족함 없이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9살 때 아버지가 자동차 사고를 내 얼마가 큰 부상을 당하셨으며 샌드라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에게 있어서 어려웠던 것은 아버지가 딸의 안전을 지나치게 걱정하신 나머지 그녀가 놀고 싶어하는 또래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하셔서 늘 외롭게 지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동네에서 살며 그곳에서 경찰관 일을 하시던 샌드라의 아버지는 간혹 범죄를 저지른 이웃을 감옥에 보내야만 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대한 보복을 당신의 외동딸인 샌드라가 당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샌드라의 불만은 사춘기가 되면서 반항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1살 때 그녀는 사탄에게 자기의 몸을 써달라는 간구를 했으며 그날 저녁부터 그녀는 마귀에게 억눌리며 악몽을 꾸는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그녀의 영을 몸에서 빼내 호흡을 곤란하게 했으며 어떤 때는 이리다 죽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마귀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그녀는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부모님의 돈을 훔쳐 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경찰에 보고해서 샌드라는 15살에 형을 받고 소년원에 보내졌습니다. 불행히도 그녀가 간 소년원은 자신들의 죄를 흘려서 사탄을 숭배하는 아이들로 인해서 샌드라는 그곳에서 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샌드라는 소년원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으며 믿음이 생겨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약을 끊지 않고 계속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탄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친구들이 사탄에게 강제로 바치는 일도 벌어졌으며 스스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셋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녀의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기르고 계십니다. 전에 교도소에서 출감한 후 새로운 삶을 살고자 대학교에 입학한 후 남자친구와 문제가 생기자 실망한 그녀는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약으로 인해 교도소 생활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서서히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성경이 주어졌고 성경을 읽으며 마음에 많은 깨달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으며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변화프로젝트 문서선교를 위해 책 수정을 하는 자원봉사도 시작했고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예레미야 29:11-12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샌드라는 더 이상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교도소를 출감하면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최근에 샌드라가 다닐 신학대학교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미국은 재소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출감한 후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녀는 학교에 돌아가 다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샌드라는 과거에는 고통의 길에서 신음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에 새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간증을 썼습니다. 샌드라의 변화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샌드라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녀가 교도소를 떠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변화와 헌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저도 그녀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교도소 사역을 돕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샌드라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 특별기고



강승호 목사  
(필라 순복음중앙교회)

## "이 시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크리스천의 자세"

요즘은 고국의 소식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오신 기성세대들에게는 미워도 좋아도 내가 태어났고 자라며 부모의 사랑 속에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이 어울려 더불어 살아온 조국이고 고 이기에 잊을 수가 없고 세상 떠나는 날까지 기억을 더듬어 추억하고 살아간다.

고요하고 예의 바르고 의리 있고 인정 많은 나라로 일컬어오던 조국이 언제부터인가 약육강식하며 권모술수와 부정부패로 퇴락해가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고국은 지금 여소야대가 되면 정치가 새로워 질 줄 알았지만 반복은 여전하기만 하다.

그 뿐인가? 중북과들은 때 만난 듯이 날뛰고 국민이 열망하는 경제 안정은 뒷전이고 혼란이 거듭되고 정치인들은 당리 당락에 혈안이 되어 있고, 대권 도전에는 딱딱 국민은 따로 있는데 김치국만 생각하고, 민주주의란 미명하에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설채대니 참으로 조국이 모두가 대오각성하여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네 탓으로 알고 인내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화합과 단결로 새롭게 도약하였으면 한다.

언론도 공명정대하면서도 국민을 계도하고 선도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중립보다는 국민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 보도가 아쉽기만 하다.

북한 김정은 공산 정권은 부모도 친척도 애인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세계가 북한이 핵개발로 남한을 무너뜨리려는 야욕을 중단할 것을 결의한 것도 무시하고 남침의 협박을 일삼는데, 좌경 세력들이 설 땅이 어디며, 망상에 사로잡힌 그들의 저의가 무엇인가 알고 싶다.

#### (1면에서 계속)

캐나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캐나다 인구는 거의 2배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회, 장로교회, 루터교회 그리고 연합교회 역시 1960년 이후로, 교세는 거의 반절이상 감소했다. 그리고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임상적으로 왜 주류교단들에서 성장이 멈추었는가를 알게 됐는데, 그 자세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저널 '리뷰 릴리저스 리서치' 12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가 알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는데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최순실 사건은 절대 잘못임을 시인 하였고,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하지 못한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실화된 현실을 탓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법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다.

크리스천 입장에서 소망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역사의 오점을 남길 것이 아니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정죄보다 관용과 사랑으로 감싸주고 여 야가 당파를 초월해서 대동단결하여 거국 내각이던 중립 내각이던 양당 합의하에 구성하여 하루속히 조국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솔로몬 같은 재판관이 필요하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예수님 말씀이고, 일곱 번이 아닌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 했고, '정죄보다는 용서가 중요함'을 말한다. 우리 모두가 지속하고 자성하며 자각할 때가 아닌가 싶고 정죄만 능사가 아닌지 않는가 싶다.

요즘은 미국 동포들 사이에서도 박 대통령 하야를 성토했다는 모임들이 있는데 자칫하면 또다시 지역감정이나 보수, 진보의 사상 대립으로 오인될 수 있고 미국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칠까 염려된다. 이민 동포들이 떠나면 이국땅에 온 목적이 분열과 반목으로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며, 밤낮으로 동분서주 하는 이유는 아메리칸 드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 성도라면 기도 할 때이다.

성경 말씀대로 정치는 정치인들에

게 맡기고 동포들은 더욱 단결하고 화합하며 생업에 매진하며 니스웨 백성들처럼 더욱 조국에 과거 대쪽 같은 애국심으로 국론을 다스렸던 애국 애족의 지사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한다. 재미 동포들은 누구 편도 아니고 오로지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이 되어 역사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국이 안정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뜨겁게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소원한다.

프랑스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진 진정한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나타내는 말이다. 노블레스는 명예이고 '오블리주'는 의무를 의미 하는데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높은 도덕성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 고국도 그런 희생 정신과 봉사 정신을 가진 정치인들과 지성인 지배층들이 나타나 국내외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지도자가 많아지기를 소원한다. 또모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국 애족 백의종군하며 청렴결백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한다.

성경은 말씀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릇을 지어 성취 하시는 여호와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시 127:1, 렘33:2-3).

gospel\_5th@hotmail.com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 GPS CENTER



강사: 라흥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제2회 독후감공모 심사 후기 및 독후감 쓰는 방식에 관하여



**백승철 목사**  
(시인, 에피포도예술인협회 대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2회 독후감공모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미 수상자들은 통보를 받았을 것이다. 지난해보다 많은 응모가 있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번 해도 여전히 최우수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가득하다. 다음은 논의될 독후감 쓰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최우수상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제3회 독후감 공모를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선 많은 편수에도 불구하고 독후감(감상문) 쓰는 이해가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독후감의 사전적 의미는 “책을 읽고 난 뒤의 느낌 또는 그 감상을 적은 글”로 적고 있다. 독후감은 독자가 선정한 책을 읽은 다음에 여러 느낌을 적은 글이다.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는다.

제 1단계, 독후감의 제목과 주제를 정한다. 책 제목으로 정하는 것은 진부하다. 책을 읽은 독자가 독후감을 읽은 후 글을 전개하려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염두 해 두고 그 주제와 제목에 맞게 서술할 것을 구상한다.

제 2단계, 도입부로 책을 선정한 이유, 저자의 정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결한 문장으로 연결한다. 책 선정은 현재 독자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이유여야 한다. 저자의 정보는 일반적인 것보다 저자의 특별한 부분에 집중해서 찾는다. 책

의 전체 내용 요약은 몇 문장으로 길지 않을수록 좋다. 그 문장 요약이 앞으로 독후감을 전개해 나가는 글의 방향을 결정한다.

제 3단계, 요약된 책 내용을 중심으로 이미 설정한 주제와 상호관계 논리에 맞게 그 내용을 좀 더 부적으로 짚어간다. 그 내용에 독자의 상황과 감정이입된 것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그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더욱 염두 해둔다.

제 4단계, 선정한 책을 읽기전과 읽은 후의 느낌에 대해 총 결론을 주제와 제목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 그런 결론이 난 것에 대해 설명과 이유가 확인해야한다. 그 책으로 인해 미래에 어떤 부분에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 표현도 좋다.

아마 위와 같은 독후감 쓰는 요령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 그 방식과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번 응모 작품에도 독후감과 거리가 먼 이야기가 많았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하려 한다.

첫째, 책을 읽은 독자는 그 책의 내용요약을 명확하게 하라. 다시 말해 충분히 책 내용 전체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책의 내용은 독자의 산물이 아니다. 자신의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셋째, 책을 읽은 독자는 일인칭

화법을 사용하라. 내가 읽은 책에 대해 감상문을 적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어를 이인칭, 삼인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넷째, 독후감을 읽는 또 다른 독자를 설득하려고 하지마라. 설교 혹은 훈계하는 식의 이야기 전개는 독후감이 아니다.

다섯째, 독후감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마라. 독후감은 간증문이 아니며 단순 요약, 서평, 비평, 평론이 아니다.

여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글의 전개가 논리적이여야 한다. 무슨 말을 하든지 알 수 없는 글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일곱째, 독후감 공모 시 제시된 규칙을 준수하라. 이를테면 글자 크기, 분량, 간격 등 제시된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최우수상이 없는 우수상, 가작이 선정되었다. 그래서 다음 해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가 아닐 것이다. 이유는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가 값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종이 뽕새 맞기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사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후감 공모를 통해 글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준비된 그리스도인 작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usaep@hanmail.net

(10면에서 계속)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등불로 법사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셋째,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다. 다윗 주변에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회장 혼자 일할 수 없다. 여기 참석한 분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현재 조국도 미국도 어렵다. 진정한 빛이 필요한 이 시기에 세계의 중심 뉴욕에서 등불을 밝히는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 이취임식은 총무 임병남 목사 사회로 기도 방지각 목사, 이임사 이종명 목사, 교협기 인제, 권면 김동석 이사, 축사 김중국 뉴저지교회회장, 장석진 세기총대표회장, 이예리 뉴욕한인회 이사장, 성상모 K-radio 1660 사장, 취임인사 김홍석 목사, 강영규 장로, 공로패 증정(이종명 목사, 박진하 목사, 한준희 목사), 광고 최현준 목사, 폐회 및 오찬기도

김용걸 신부의 순서로 진행됐다. 취임인사에 앞서 뉴욕뉴기븐교회 여성3중창이 있었으며, 임실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뉴욕교협 43회기는 특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외에 지역자치 행정위원회를 두고 전 회원교회의 참여와 연합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또 교협 증경회장 및 증경이사장들은 자문위원회에 소속됐다.

△임원: 회장 김홍석, 부회장 이만호 이상호(집사), 총무 임병남, 협동총무 양민석, 서기 최현준, 부서기 최요셉, 회계 이광모(장로), 부회계 장현숙(이상 목사).

△특별위원회: 선거관리/김원기, 회원관리/현영갑, 재산관리/최창섭, 법규/양승호, 신학윤리/유상열, 상벌/김요셉, 지역협력/이재덕, 교단협력/김중훈, 청소년/송병기, 출판/이만호(이상 목사)

△분과위원회: 선교/이재봉, 교

육/김경열, 목회/박준열, 행사(사무)/김희복, 재정/손석완(장로), 홍보/이준성, 경조/김승희, 체육/김재룡, 여성/정양숙, 역사/박이스라엘, 국제/이희선, 사회/임재홍, 노인/정대영, 상담/김재호, 미디어/윤세웅, 조선-고려/레오나드김, 장애인/송일권(이상 목사)

△지역자치 행정위원회: 위원장/이만호, 부위원장/이상호(집사), 총괄본부장/양민석, ▽서부지구/이풍삼-1/주호식 장경혜, 2/이종범 김해근, 3/박요성 노성모, 4/박상일 박윤선, 5/최호섭 김재권 ▽중부지구/문석호-6/정상철 권캐더린, 7/이은수 임용수, 8/정관호 허윤준, 9/박희근 황영송 ▽동부지구/김재열-10/정광성 김성은, 11/고훈 김현수, 12/김영인 한석진, 13/은희곤 이지용, 14/황태연 김신영(이상 목사).

(유원정 기자)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제2회 독후감공모전 수상작



**송정훈 집사**  
(나침반교회)

### “뿌리 깊은 영성” (우수상 수상)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린 생명력 있는 영성

청운(靑雲)의 꿈을 품고 유학 길에 오른 지 벌써 16년이 되었다. 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져왔던 3권의 책은 성경, 민경배 교수의 ‘한국교회사’, 그리고 강준민 목사의 ‘뿌리 깊은 영성’이었다. 유학 초,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던 시기에 나에게 힘과 버팀목이 되어준 ‘뿌리 깊은 영성’을 다시 손에 잡으니 만감이 교차한다.

대학교 2학년 전공시간에 교수님이 물었던 질문이 생각난다. 장래 ‘꿈’에 대한 것이었다. 재미있었던 것은 함께한 50여 명의 꿈 중 거의 겹치는 것이 없었다는 것과 나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교수님의 반응이었다. “저의 꿈은 바로 예언자(豫言者)적 지성인(知性人)이 되는 것이다.” 생소한 단어를 조합으로 예상하지 않아 보였던 나의 호기를 교수님은 만족해 하셨다. 예언자의 영성과 지성인의 지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나의 인생이다.

꿈을 추구하면서 지성적인 부분은 계속된 학업과 학위를 통해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영성의 부 نبود. ‘내가 추구해야 할 영성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균형 잡힌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 속 사람이 진실하게 동의할 수 있는 대답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나에게 ‘뿌리 깊은 영성’은 열매 맺는 영성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체계화된 통찰을 제시해준 주옥같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제목처럼 영성의 ‘뿌리’를 강조한다. 균형 잡힌 영성은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다. 그렇다. 진정한 영성의 뿌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없는 영성,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은 영성은 뿌리 없는 영성이다.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라버리는 사이버 영성을 경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2천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이다.

영성은 또한 고난과 함께 한다. 고난이라는 자양분을 통해서 영성은 뿌리가 더 깊어지고, 성숙하여 열매를 맺는다. 영성이 예수님께 뿌리를 굳게 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광야라고 일컬어지는 고난의 현장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두려운 진리이다. 나 또한 지난 16년간을 이민자로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불행과 전갈이 있고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적지 않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지내기도 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광야로 내보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광야를 사랑하기 보다는 광야를 두려워했다.

저자는 광야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과 사람이 임박하는 곳이다. 라고 정의했다. 문득 이 한 줄의 문장을 쓰기 위해 짊어져야만 했던 사역자로서의 고난의 깊이가 느껴진다. 현실적인 공간인 땅에 존재하는 저자가 하나님의 공간인 하늘과의 만남을 가지기까지 겪어야만 했던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또한 고난과 함께 가는 깊은 영성으로 저자가 경험했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느껴졌다. 고통의 연속인 광야에서도 영원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임박함을 경험한 저자의 깊은 환희와 평강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려 하는 나 역시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싶은 신앙고백이다.

이 책을 통해 새롭게 배운 것은 영성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는 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다. 생명력 있는 영성을 위해서는 멈추거나 지체하지 말고 영성의 근간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계속해서 내려야 한다. 균형 잡힌 영성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비워내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치환하게 채워야 한다. 깊은 영성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끊임없이 성숙의 단계로 성장해야 한다. 성숙한 영성을 위해서는 자아를 깨뜨리고 부인하는 광야라는 훈련공간에서 홀로 치열한 삶을 이겨내야 한다. 풍성히 열매 맺는 영성을 위해서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멈추어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며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야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뿌리가 깊은 영성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뿌리가 깊은 나무의 꽃이 아름다우며 열매가 많은 것처럼 뿌리 깊은 영성은 풍성하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뿌리 깊은 믿음, 뿌리 깊은 영성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넉넉한 존재로 살고 싶다. 예수님의 겸손재로 살고 싶다. 영성처럼 비록 편안하지 않을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삶을 추구하는 영성을 추구하며 살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영성,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거룩한 영성, 광야학교를 절제와 인내로 묵묵히 그리고 넉넉히 통과해 가는 성숙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

진정한 영성의 소유는 단순한 깨달음이나 바람의 차원을 넘어선 행함의 차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영성의 근간이신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

On Campus Courses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치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April 24-28(4월 24-28일) On campus or Chicago, IL**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Dr. Stephen Park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사모단상

재정은 걱정 마시고 목양에만 전념하세요

필자의 친구 사모는 재능이 많아서 자신의 양장점을 차려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해 돈도 잘 벌었다. 그 사모는 남편 목사에게 "제가 목사님 목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은 다 책임져 드리겠으니 목사님은 재정은 걱정하지 마시고 목양에만 전념하세요" 하면서 교회 차량도 사 드리고 열심도 재정적인 후원을 다 해드렸다. 결국 실력도 있고 학위도 있는 남편은 목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중대한 것을 보았다.

목회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사모의 적극적인 기도의 후원과 또한 성도들을 돌보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한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5) 목회는 곧 '대인관계'라고 할 정도로 목사는 교회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만난다. 그리고 교회의 여성도 수가 남성보다 더 많다 보니 목회자는 여성도들과 과도 접촉할 기회가 많다.

내조했다면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나 목사님이 아깝다. 안됐다"라고 하며 자신의 전문분야의 성공만 추구하던 사모를 나무라게 되었다.

사모의 헌신적인 내조 없이 목사 혼자서 목회에 성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남편의 목회 사역에 전혀 관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모 중에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어 나갈 자신이 없거나 성도들의 영적 고민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남편의 목회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마치 사모가 덕을 세우기 위해 억제한 양 위선적인 겸손으로 사양하는 척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모들은 외적으로는 의젓하게 보인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고독해 하며 스스로 비관할 때가 많다. 차라리 솔직하게 자신의 여부족을 시인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자기에 주어준 재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라. 남편의 목회에 힘이 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모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보람된 일이다.

사모는 남편의 목회 사역에 초연해되다는 자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교회도 남편도 보이지 않는 피해를 당한

그 결과 교회에 도움을 주는 대신에 큰 혼란과 문제를 가져오는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필자는 3가지 유형의 사모의 역할을 다 경험해 보았다. 목회 초년에는 완전히 남편 목사의 목회에는 관여도 두지 않고 나 자신의 전문 분야인 약사로서 대학병원에서 전임을 다하여 일만 하였다. 남편의 목회 사역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완전히 격리된 초연하는 사모형이었다.

그 당시 남편 목사는 오하이오 주에 있는 클리블랜드 시에서 가까이 있는 '벤트'라는 도시에서 미국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한번은 미국 감리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병희 목사님을 초빙했지 사모를 초빙한 것이 아닙니다. 사모는 목사님의 아내로서 남편을 돌보며 자녀들을 돌보는 책임 외에 교회의 일이나 목회 사역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사모로부터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만일 사모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성도들에게 사모를 대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 당시 필자는 폴타임으로 병원에서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다윗이 그날에 두려워하여(삼하6:6-9)

다윗은 혼란했던 이스라엘을 정돈하고 블레셋을 두 번 물리친 후에 곧바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준비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법계를 옮기려고

했는데 가장 앞서서 법계를 새 수레에 끌고 가던 옷사가 법계에 손을 댄으로써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계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계획을 취소하고 법계를 오벧에돔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평생 동안 성전과 법계에 관계된 일에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화 여호와와 겐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삼하6:9)

옷사가 죽은 후에 다윗은 법계를 모셔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법계를 모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법계를 오벧에돔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많이 겪게 하시면서 단련시키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행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베라의 사건으로 사도행전의 교회가 크게 흔들릴 위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성령 충만하게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평생에 훌륭하게 세우기 위해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수 오벧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삼하6:10)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며 즉시 법계를 오벧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하면서도 늘 용서함을 받고 잘되는 사람이 있고 잘한다고 하면서도 늘 결국은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하면 고칠 생각도 하기 전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분

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밀고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것을 깨달으면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즉시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살아가면서 솔직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 오벧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삼하6:11-12)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법계를 오벧에돔의 집에서 모셔두고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역대상15장).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인지 은혜 받고 복을 받은 성도들

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벧에돔의 집에서 법계를 잘 모셔다 모셔 3개월 동안 큰 은혜를 받았고 큰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나도 오벧에돔과 같이 복을 받으시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앞장서서 갔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입니다.

금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겐을 기쁨으로 메고(삼하6:12)

성경에 복을 받는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두가 복을 받았습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성도는 법계로 인해 놀라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계를 빼앗아간 후에 재앙을 만났습니다. 결국 무서워서 법계를 기러기아람에 옮겨놓았습니다. 사울왕과 엘리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법계를 잘 모시지 못해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러

기아람에 수습된 동안 법계가 있었어도 아무도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벧에돔의 집에 3개월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온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토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삼하6:12-15)

다윗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최고로 소중하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법계를 옮겨오는데 총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계를 메고 여섯 길음을 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목할 것은 다윗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법계를 옮길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법

계를 옮기는 데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15)



이희숙 사모

특히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면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주의 종에게 쏠린다. 여성도일 경우에는 잘못하면 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으로 변해 본의 아니게 주의 종에게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성도 중에 가정에서 자신의 남편과 원만한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여 고민하는 여성도 주의 종의 따뜻한 위로의 말이나 친절한 말로 자신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대우를 받으므로 목사에게 반해서 혼자서 주의 종을 흠모하며 짝사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모는 남편 목사와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중대한 사명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그 사역을 수행하는데 돕는 배필 '에제르'로서 무엇인가 값진 보화를 남기는 지혜로운 참여 드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목회 사역에 참여하는 삼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하여 그 장단점을 고찰해 보았다.

일하는 때라서 감리사님의 말씀에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감리사님 뵙습니다!" 하면서 박수를 쳤다. 물론 속으로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전혀 남편의 목회 사역에 부담을 갖지 않고 병원에서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간절한 심령으로 변화되어 나 자신의 개인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점점 남편의 목회 사역을 돕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나는 소극적으로 뒤에서 남편 목사님의 목양 사역을 돕는 사모형이었다. 후에는 목회자 사모로서 심히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남편의 목회 사역에 훌륭한 '에제르'가 되기 위해 내 자신의 전문분야를 다 내려놓았다. 그리고 남편 목사님의 격려와 후원을 받아 신학공부를 하고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적극적인 동역자로서 참여하였다. 풀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은퇴 후에 지금까지 남편 목사님과 함께 '세게는 나의교구', '복음의 나팔수로, 성령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라고 구호를 외치며 오대양 육대주를 열심히 뛰며 중성하는 남편 목사님의 '에제르'로, 동역자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hslee39@sbcglobal.net

사모단상

자신의 전문분야의 성공만 추구하던 사모

김 목사는 대도시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성공적인 유능한 목사였다. 사모는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리기 위해 공부도 더하고 학위도 땀. 마침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 만족하면서 열심히 일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편 목사는 여자와의 스캔들로 인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야만 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사모가 남편 목사님의 목양에 좀 신경을 쓰며 잘

지금까지 목회 사역에 참여하는 삼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하여 그 장단점을 고찰해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 목사가 무엇을 필요로 하며 또 사모가 어디까지 참여하기를 원하는가를 의논해서 남편 목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부부 간에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 아무리 교회에서 원한다 해도, 또 아무리 사모 자신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해도 장본인인 남편 목사가 반대하면 그 원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 만일 사모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보다 앞장서서 나간다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the USA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 피종진 목사 국내·외 성회 일정

## 2016년도에 국내외에서 피종진 목사를 초청하여 각 부흥성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신 교회와 각 기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한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목회대학원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 미국 Philadelphia Faith대학원(D, Min)  
· 미국 Henderson C. 대학교(Th, D)  
· (사)세계기독교부흥성회 대표총재  
· (재)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총재  
·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HP : 010-5255-7777

### 1월

- 1(금) 철야 안양 갈멜산삼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472-7212
- 3(주) 오후 구리 성민중앙교회(강영준 목사) ☎ 010-9260-1091
- 4(월)-6(수) 포천 로열교회(이태일 목사) ☎ 010-4758-8589
- 7(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852-2211
- 8(금) 오전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대표회장 장형희 목사)
- 10(주) 오후 남양주 영광복음교회(김영일 목사) ☎ 010-4055-0675
- 11(월) 오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정상은 목사)
-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12(화) 오후 인천 영광교회(조강수 목사) ☎ 010-8980-0695
- 13(수) 저녁 대구 갈렙세계선교교회(최찬교 목사) ☎ 010-6777-1412
- 14(목) 저녁 부천 세사망교회 ☎(032)348-7205
- 16(토) 오전 서울 뱌발교회(오정희 목사) ☎ 010-4813-2227
- 17(주) 오후 서울 강남임마누엘교회(정요한 목사) ☎ 010-3917-0616
- 18(월)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념급식기도원(원장 이용우 목사) ☎(03)947-0091

#### 제195차 해외성회(195th Overseas Assembly)

- 18(월)-19(화) 캄보디아(Cambodia) 프레이중양교회(준비위원장 이부중 선교사)
- 20(수)-21(목) 캄보디아(Cambodia) 씨열림중앙교회(준비위원장 이부중 선교사)
- 24(주)-26(화) 군산 예수능력교회(김정민 목사) ☎ 010-9679-8477
- 31(주) 오후 서울 예일교회(김미라 목사) ☎ 010-5574-9372
- 31(주) 저녁 순복음성남교회(양병열 목사) ☎(03)1753-6011

### 2월

- 1(월) 오후 부천 총현연신학교(학장 박종두 목사) ☎ 010-7707-0150
- 1(월)-3(수) 김포 한빛교회(김선일 목사) ☎ 010-4737-0691
- 2(화) 오전 계몽 도산기념도원(원장 이종복 목사) ☎(042)841-8513
- 4(목)-6(토) 영광 사랑의교회수양관(고정우 목사) ☎ 010-9319-0191
- 7(주)-10(수) 새장원예교회(피은혜 목사) ☎ 010-8540-9642
- 12(금) 오전 인천 총현신학교(학장 민충만 목사) ☎ 010-9282-5873

#### 제196차 해외성회(196th Overseas Assembly)

- 15(월)-19(금) 일본(JAPAN) 아야미가족의동산(원장 남덕순 목사) ☎ 080-5112-5127
- 15(월)-19(금) 일본(JAPAN) 요가미제중앙교회(선안수 목사) ☎ 070-4656-3836
- 21(주) 오후 서울 강남임마누엘교회(정요한 목사) ☎ 010-3917-0616
- 22(월)-23(화) 인도(India) 콜인신학교(이재일 선교사) ☎ 072-8253-8418
- 24(수) 인도(India) 브니엘교회(Herwinsoul Winner 목사)
- 25(목) 인도(India) 원주민목회자 실천목회세미나 ☎ 010-7707-0150
- 27(토) 오후 의정부 순복음평안교회 ☎ 010-3064-8291
- 28(주) 오후 서울 뱌발교회(허동민 목사) ☎ 010-9954-9191
- 29(월) 오전 나라사랑 구국기도회(준비위원장 황세환 목사)

### 3월

- 1(화) 오후 용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정인찬 박사) ☎(03)1270-6000
- 3(목)-5(토) 김포 참좋은교회(최윤남 목사) ☎ 010-8222-0591
- 7(월) 오전 서울 드림선교교회(오영자 목사) ☎ 010-3284-9238
- 7(월) 오후 서울 치유교회(김진순 목사) ☎ 010-9802-2188
- 7(월)-9(수) 광주 삼물산교회(고정익 목사) ☎(062)432-6392
- 14(월) 오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 연세인 수상식(연세총동문회관)
- 14(월)-16(수) 남양주 아가페복음기도원(원장 최경애 목사) ☎(03)11513-3727
- 17(목) 오후 익산 말씀찬양교회(윤도영 목사) ☎ 010-2005-2292
- 21(월)-24(목) 군산 에스겔기도원(원장 김양선 목사) ☎ 010-8924-4927
- 25(금) 오후 안양 갈멜산삼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472-7212
- 28(월) 오후 백석대학교(총장 장중현 박사) 목회연구원(원장 이 선 목사) ☎(02)520-0801
- 28(월) 저녁 수원 비전교회(홍중국 목사) ☎ 010-7223-9650
- 29(화) 저녁 서울 행복이넘치는교회(정소피아 목사) ☎ 010-8701-5764

### 4월

#### 제197차 해외성회(197th Overseas Assembly)

- 4(월)-8(금) 일본(JAPAN) 오사카 오즈비야오국제기도원(원장 김형희 목사) ☎ 010-9188-6270

- 11(월)-12(화) 서울 세벽교회(강병두 목사) ☎(02)547-9110
- 14(목) 오전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기도회 및 전국원로목회자체육대회  
장소: 잠실학예체육관 ☎(02)423-9181
-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주태 대표)  
(이사장 임원순 목사, 대표회장 이주태 대표)
- 15(금)-17(주) 미국(U.S.A) 아틀란타 퓨어가스펠로교회(이규자 목사) ☎(770)402-1267
- 18(월)-20(수) 미국(U.S.A) 미중인민목회자 연합총회세미나  
장소: 애틀랜타 서광교회(조남경 목사) ☎(678)654-7288
- 주최: 애틀랜타 동남부노회(노회장 조남경 목사) ☎ 010-2383-8363
- 24(주일) 오후 용인 세사망교회(육근석 목사) ☎ 080-6436-9807
- 25(월)-27(수) 일본(JAPAN) 대마도 선교대회  
장소: 대마도교회(박영철 목사) ☎ 02067-4500
- 주최: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정상은 목사)
- 28(목) 오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이억범 목사) ☎(02)428-2306
- 30(토) 오전 대전 새길교회(김경호 목사)

### 5월

- 2(월) 오후 청주 권승교회(김준수 목사) ☎(043)271-1009
- 2(월)-4(수) 서울 주성교회(남보석 목사) ☎ 010-7220-0733
- 3(화) 오전 서울 장신대학교(총장 안주호 목사) ☎(03)1799-9012
- 8(주일) 저녁 대전 주안장로교회(전정순 목사) ☎(041)631-7216
- 9(월) 오전 경기도 광주 영광교회(이기웅 목사) ☎(031)769-0692
- 9(월) 오후 의정부 한빛교회(이재민 목사) ☎(031)852-0005
- 10(화)-12(목)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합동총회  
(U.K.P.C 총회장 피종진 목사|필라델피아노회)|  
서기 김영연 목사|아틀란타동남부노회)|  
총무 김경순 목사|필라델피아노회)|

#### 제198차 해외성회(198th Overseas Assembly)

- 13(금)-15(주) 미국(U.S.A) 메릴랜드 영광장로교회(이상록 목사) ☎(443)600-2569
- 16(월)-18(수) 미국(U.S.A) 메릴랜드 목회자세미나  
주최: 메릴랜드기독교연합회(회장 김병문 목사) ☎(410)852-0999
- 19(목) 미국(U.S.A) 아틀란타 동남부노회(노회장 조남경 목사) ☎(678)646-7773

### 6월

- 20(금) 미국(U.S.A) 아틀란타 예수사랑교회(문길영 목사) ☎(770)403-6869
- 22(주일) 미국(U.S.A) 샬롯장로교회(이상근 목사) ☎(704)877-6742
- 23(월)-25(수) 미국(U.S.A) 샬롯 Billy Graham Center 목회자세미나  
주최: 미중인민목회자총연합회(KOCCA 대표회장 최낙민 목사, 준비위원장 김영민 목사) ☎(215)771-9191
- 28(토) 오전 전기총신문(이사장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영현 목사) ☎ 010-6309-0003
- 장소: 거진 고성편선 화포리 ☎ 010-9913-0675
- 29(주일) 오후 원당 드림교회(원성재 목사) ☎ 010-2248-0675
- 30(월) 오후 한국목회자학술연구원(박승국 목사) ☎ 010-2248-0675
-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7월

- 3(금) 서울 한영신학대학교(총장 이억범 박사) ☎(02)2067-4670
- 4(토) 오후 서울영광장 전도집회 ☎(02)755-9171
- 주최: (재)한국기독교학술진흥재단(이사장 이형춘 목사)
- 6(월)-9(목) 중국(China) 청도 해외부흥협력수련회(준비위원장 양명환 목사)
- 주최: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대표회장 장형희 목사)
- 13(월)-16(목) 캄보디아(Cambodia) 씨열림 원주민성회(대회장 이부중 목사)
- 20(월) 저녁 가평 불기둥기도원(원장 신성자 목사) ☎(031)581-0418
- 21(화) 저녁 충주급식기도원(원장 김승자 목사) ☎(43)853-3990
- 22(수) 오전 전국목회자모임세미나(장소: 서울 예정교회) ☎(02)435-0541
- 주최: 목회자모임세미나(이사장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 23(목) 저녁 대전 제일교회(김창수 목사) ☎ 010-6774-9005
- 24(금)-26(주) 광명 일직교회(김성진 목사) ☎(02)897-1192
- 27(월) 오전 서울 임마누엘교회(홍사현 목사) ☎ 010-5255-2207
- 27(월) 오후 부천 찬양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 27(월)-30(목) 미국(U.S.A) 샌프란시스코 Nysck World Conference '16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 준비위원장 LA김은목 목사) ☎(925)567-4878
- 장소: California State University (East Bay) ☎(510)909-5525
- 4(월) 미국(U.S.A) 샌프란시스코 목회자 & 제직세미나(준비위원장 이재석 목사) ☎(032)469-5840
- 8(금) 철야 인천 열린문교회(김재원 목사)

### 8월

- 1(월) 오후 부천 찬양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 11(월)-13(수) 인천 국제은행기도원(원장 김금수 목사) ☎ 010-5689-0091
- 15(금)-17(주) 서울 임마누엘교회(최복수 목사) ☎(02)436-1777
- 18(월) 오전 원주 사랑교회(이종민 목사) ☎(033)734-6727
- 19(화) 오후 국제유리탄부흥운동본부(부부장 류성일 목사) ☎ 010-2291-5112
- 20(수) 저녁 공주 평안교회(김춘배 목사) ☎ 010-2044-0511
- 21(목) 오후 가평 강남급식기도원(원장 김성광 목사) ☎(031)584-1001
- 22(금) 오전 서울 보라성교회(송일현 목사) ☎(02)442-1677
- 22(금) 철야 파주 세계로금강교회(주성민 목사) ☎(031)949-9121
- 25(월) 오후 서울 은혜교회(이유남 목사) ☎ 010-2358-2307
- 25(월)-28(목) 광주 호남대학교 NYSCK Conference 한국교회(HQ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 ☎(062)940-5114

- 11(월) 오후 부천 찬양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 11(월)-13(수) 인천 국제은행기도원(원장 김금수 목사) ☎ 010-5689-0091
- 15(금)-17(주) 서울 임마누엘교회(최복수 목사) ☎(02)436-1777
- 18(월) 오전 원주 사랑교회(이종민 목사) ☎(033)734-6727
- 19(화) 오후 국제유리탄부흥운동본부(부부장 류성일 목사) ☎ 010-2291-5112
- 20(수) 저녁 공주 평안교회(김춘배 목사) ☎ 010-2044-0511
- 21(목) 오후 가평 강남급식기도원(원장 김성광 목사) ☎(031)584-1001
- 22(금) 오전 서울 보라성교회(송일현 목사) ☎(02)442-1677
- 22(금) 철야 파주 세계로금강교회(주성민 목사) ☎(031)949-9121
- 25(월) 오후 서울 은혜교회(이유남 목사) ☎ 010-2358-2307
- 25(월)-28(목) 광주 호남대학교 NYSCK Conference 한국교회(HQ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 ☎(062)940-5114

### 8월

- 1(월) 오전 가평 강남급식기도원(원장 김성광 목사) ☎(031)584-1001
- 1(월)-3(수) 원주 중부교회(김이열 목사) ☎(033)744-2760
- 4(목) 오전 서산 열림교회(이종민 목사) ☎(041)662-6901
- 4(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 5(금) 오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조: 하림각) ☎(042)841-8513
- 8(월)-11(목) 계몽 도산기념도원(원장 이종복 목사) ☎(031)947-0091
- 12(금)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념급식기도원(원장 이용우 목사) ☎(031)472-7212
- 13(토) 오후 안양 갈멜산삼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2
- 14(주일) 오후 인천서역 8.15 광복절연향성회  
주최: 인천시기독교연합회(회장 박종석 목사) ☎(031)636-1691

#### 제202차 해외성회(202nd Overseas Assembly)

- 15(월)-16(화) 일본(JAPAN) 오즈비야오 국제기도원(원장 김형희 목사) ☎ 010-9188-2670
- 17(수)-18(목) 일본(JAPAN) 동경(나리타) 사랑의교회(정수대 목사) ☎ 8190-6523-9118
- 22(월)-24(수) 부여수양관(원장 김상률 목사) ☎(041)832-0211
- 29(월) 오전 한국기독교원로장로총연합회(회장 박우승 대표) ☎ 010-6272-7004
-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031)772-9113
- 31(수) 저녁 여의도순복음영광기도원(원장 여태근 목사) 주최: 두나미부흥협의회(대표회장 최요원 목사)

### 9월

- 1(목) 저녁 평택 광운기도원(원장 김한배 목사) ☎(031)668-0550
- 주최: GoodTV부흥사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민기 목사)
- 3(토) 오후 서울역교회(이형춘 목사) ☎ 010-9343-5652

#### 제200차 해외성회(200th Overseas Assembly)

- 5(월)-10(토) 베트남(Vietnam) Danang 선교대회  
주최: 연세대학교목회자부흥협의회(대표회장 장형희 목사) ☎(031)394-2733
- 11(주일) 오후 군포 성장교회(김인기 목사) ☎(042)483-2306
- 12(월) 오전 대전 새길교회(김경호 목사) ☎(031)584-1001
- 13(화) 오전 가평 강남급식기도원(원장 김성광 목사) ☎(031)584-1001
- 19(월) 저녁 오산리최자실기념급식기도원(원장 이용우 목사) ☎(031)947-0091
- 21(수)-23(금) 미국(U.S.A) 오글라호마 목회자연향세미나  
장소: 오글라호마 세벽교회(김은복 목사) ☎(405)672-5062
- 주최: 오글라호마기독교연합회(회장 정홍기 목사) ☎(405)528-2665
- 23(금) 오전 미국(U.S.A) 오글라호마 목회자연향세미나  
장소: 오글라호마 제일장로교회(박문석 목사) ☎(405)528-2665
- 24(토) 미국(U.S.A) 오글라호마 리버비시콘퍼런스(조남경 목사) ☎(678)654-7288
- 25(주일) 미국(U.S.A) 오글라호마 로현안장로교회(심평중 목사) ☎(580)357-0681

- 26(월)-27(화) 미국(U.S.A) 아틀란타 미중해외동맹총회신학대학원 ☎ 010-9977-5606
- 29(목) 오전 군산 호렙산기도원(원장 홍성선 목사) ☎ 010-9977-5606

### 10월

- 3(월) 오전 가평 강남급식기도원(원장 김성광 목사) ☎(031)584-1001
- 3(월) 오후 대구 응달기도원(이희중 목사) ☎ 010-2596-2353
- 3(월)-5(수) 포항 브니엘교회(박민정 목사) ☎ 010-6546-0108
- 7(금) 오후 원당 드림교회(원성재 목사) ☎(031)966-9081
- 8(토) 오전 서울 스마교교회(연인애 목사) ☎ 010-2711-7777
- 10(월) 오전 충주급식수양관(원장 박희선 목사) ☎(043)269-5211
- 주최: 목회자부흥사연수원(원장 오관석 목사) ☎ 010-9454-5285
- 11(화) 오후 부산 목양순복음교회(김영돈 목사) ☎ 010-2711-7777
- 14(금) 오후 서울 스마교교회(연인애 목사) ☎(051)322-5707
- 16(주) 저녁 김해 주안교회(정상은 목사) ☎(02)920-0801
- 17(월) 오후 서울 백석대학교(총재 장중현 목사) 실천목회대학원(원장 이 선 목사)

#### 제201차 해외성회(201st Overseas Assembly)

- 18(화)-21(금) 남태평양 팔라워(Palau) 독립기념 원주민연합성회(하승욱 목사) ☎(680)587-1010
- 주최: 남태평양복음화성회(준비위원장 홍성선 목사)
- 24(월)-27(목) 뉴질랜드(New Zealand) 원주민성회

- 28(금)-30(주) 뉴질랜드(New Zealand) 오글랜드 소망교회(박노영 목사) ☎(642)7480-1172
- 28(금) 오후 뉴질랜드(New Zealand) 피라카이 Jesus Love Presbyterian Church (김영수 선교사) ☎ 09-449-0691
- 30(주) 오전 뉴질랜드(New Zealand) 오글랜드한인교회(조충만 목사) ☎ 09-836-0191

### 11월

- 5(토) 오전 세계선교연대(총재 최요한 목사) ☎ 010-3767-0347
- 장소: 프린스호틀 캔벤선 2층 ☎(031)584-1001
- 8(화) 오전 가평 강남급식기도원(원장 김성광 목사) ☎(031)584-1001
- 10(목) 오전 앞산양척기운등본부(명예총재 김자현 목사, 총재 전석도 목사) ☎ 010-3191-4895
-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강당
- 11(금) 오전 제미재단법인 세계복음화협의회(장소: 필레스토호텔)
- 13(주일) 저녁 대전 주안장로교회(전정순 목사) ☎(041)631-7216
- 14(월)-16(수) 공주 한성명복교회(홍사현 목사) ☎ 010-5458-6040
- 17(목) 저녁 인천 그리스시온교회(김복기 목사) ☎(032)554-8591
- 21(월) 오후 부천 찬양교회(정민철 목사) ☎(02)843-8885
- 21(월)-23(수) 서울 시온성교회(원후자 목사) ☎(02)843-8885
- 22(화) 오전 가평 강남급식기도원(원장 김성광 목사) ☎(031)584-1001
- 23(수) 오전 CBS TV(사장 한웅길) 직필예배 ☎(02)2650-7000
- 25(금)-27(주) 서울 미래교회(임준순 목사) ☎(02)972-7765

#### 제202차 해외성회(202nd Overseas Assembly)

- 28(월)-30(수) 필리핀(Philippines) 한인연합성회(대회장 전대구 목사) ☎ 63-920-901-6041

### 12월

- 1(목) 오후 필리핀(Philippines) 경찰청성회(준비위원장 전대구 목사) ☎ 63-920-257-7222
- 3(토) 저녁 미국(U.S.A) 샌프란시스코 세사망교회(이동진 목사) ☎(510)406-1860
- 4(주일) 미국(U.S.A) 샌프란시스코 Serving Community교회(이재석 목사) ☎(510)909-5525
- 5(월) 오전 미국(U.S.A) 샌프란시스코 목회자세미나(준비위원장 목회자협의회 회장) ☎(510)406-1860
- 장소: 샌프란시스코 세사망교회(이동진 목사)
- 5(월)-7(수) 미국(U.S.A) 남가주 제자교회(이선자 목사) ☎ 010-8659-8791
- 12(월) 오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상은 목사) ☎(02)3411-9191
- 장소: 남서울중앙교회(원로목사 피종진, 담임목사 여태근)
- 12(월) 오후 한국목회자학술연구원(원장 박승국 목사) ☎ 010-2248-0675
-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 12(월)-14(수) 포항 동산교회(김성수 목사) ☎(054)231-0153
- 19(월) 오후 부천 찬양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 20(화) 오전 가평 강남급식기도원(원장 김성광 목사) ☎(031)584-1001
- 22(목) 오전 서울 생이슬교회(이옥자 목사) ☎ 010-5050-3422
- 26(월)-28(수) 팔라워(Palau) 원주민성회(준비위원장 김충훈 대표) ☎ 010-2765-3913
- 29(목)-30(금) 팔라워(Palau) 한국교회(하승욱 선교사) ☎(680)587-1010
- 31(토) 저녁 남서울중앙교회(피종진 원로목사, 여태근 담임목사) ☎(02)3411-9191

#### 피종진 목사TV, 인터넷, Radio 방송실교

- CTS 기독교TV방송  
- 매주 토요일 오후 4:30
- CBS 위망TV방송  
- 매주 일요일 오후 5:30
- GoodTV방송  
- 매주 수요일 오전 11:30
- 기독교인터넷방송  
- www.c3tv.com
- 인터넷복음방송  
- www.jesus119.net
- CBS인터넷방송  
- www.cbs.co.kr
- Jesus-tv인터넷방송  
- www.jesus-tv.net
- 기독교TV인터넷방송  
- www.kidoktv.net
- 국민일보 쿠키미디어방송  
- www.kukinews.com
- 하이인터넷방송  
- www.ichn.or.kr
- 미주크리스천헤럴드방송  
- www.christianherald.com
- 월드미션뉴스인터넷방송  
- www.wgnews.org
- 그리스천헤럴드방송(LA)  
- 매주 화요일 밤 11:30
- 미국라디오한국전교방송(워싱턴주)  
- 매일 오전 5:20
- 북가주복음방송(캘리포니아)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워싱턴기독교복음방송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대한애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0(가동동) ☎(02)3411-9191, FAX : (02)401-7770  
E-mail : Godbless3377@gmail.com

